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평 양 출 판 사
주체108(2019)년

붓을 들면서

나는 해외에서 사는 교육자이다.

내 나이 이미 예순살을 넘겼으니 반생을 교육사업에 바쳤다고 할수 있다.

생전에 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외우며 고국을 그리워하였고 어머니도 조부모님들의 뼈가 묻혀있는 평안북도 의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림종의 시각에 고국땅에 묻히고싶다고 간절히 외우시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소원이 너무도 가슴에 맺혀 나는 마침 기회를 얻어 고국을 찾았다.

때는 2001년 8월이였다.

그때로 말하면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온 겨레, 온 민족이 통일열기로 달아오르던 시기였다.

통일행사에 참가하는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에 동행하여 공화국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첫 방문의 나날을 지금도 잊을수 없다.

거리는 깨끗하고 활력에 넘쳐있었고 가로수도 무성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인상은 하나같이 밝았다. 그들의 옷차림은 수수했으나 나름의 고상한 멋과 기풍이 있어보였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절했으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친형제를 만난듯 정이 들었다.

그후부터 나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여러차례에 걸쳐 공화국을 방문하였다.

그 과정에 나는 공화국의 교육현장에 대하여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나의 직업적특성때문만이 아니였다. 공화국에서 본 교육현실에 대한 감동이 컸기때문이다.

조국의 모든 아이들은 국가의 혜택과 보살핌속에 학비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11년제의무교육(후에는 12년제의무교육)을 받고있었으며 자기들의 재능과 희망에 따라 과외교육교양기지들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노래부르고 춤추고있었다.

그 어디를 가보아도 제일 멋들어진 건물들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소년회관, 소년궁전, 야영소였고 거리마다에는 아이들을 찾아가는 콩우유차들이 특별대우를 받으며 달리고있었다.

심심산골의 자그마한 마을, 지도에 점으로나 표기되

는 섬마을에도 한두명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교원이 있었고 부모없는 아이들도 고아의 설음을 모르고 훌륭한 학교에서 배우며 자라고있었다.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일컫는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에 가면 학습열의로 들끓는 사람들을 볼수 있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학교이고 전민이 학생이였다.

그 나라의 어제를 알려면 력사박물관에 가보고 오늘을 알려면 거리에 나서며 래일을 알려면 교육현장에 가보라는 말이 있다.

이 글을 쓰기 위하여 나는 조국의 많은 학교들과 교육시설들을 돌아보았고 교육부문에 종사하는 일군들도 만나보았으며 교육시책과 관련된 많은 책들도 참고하였다.

나는 이 글에서 공화국을 조국이라고 표현하였다.

비록 내가 태여난 땅은 아니여도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림종의 순간까지 그토록 못 잊어한 그분들의 조국이고 또 이미 나의 가슴속에 공화국은 나의 조국으로 자리잡은지 오래기때문이다.

글은 발로 쓴다는 말이 있다.

내 비록 기자나 작가는 아니지만 교육자의 눈과 마음으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것들을 정리하여 세상에

내놓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눈에 익고 손에 설다고 조국의 교육실상을 다 담았다고 하기에는 빈약한 점이 없지 않다.

나의 글이 조국의 교육제도에 대하여 알고싶어하는 해외동포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중국 심양에서

김 영 란

차 례

1. 빛과 대지

아무리 좋은 씨앗도 비옥한 대지에 뿌리내리고 따스한 해빛을 받아야 무성한 잎새를 펼치고 알찬 열매를 주렁지을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조국이 새 세기에 들어와 더더욱 눈부시게 발전하는 교육현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선견지명의 현명한 령도와 따사로운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후대교육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흥망과 관련되는 중대사로 여기시고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육중시사상을 정히 받드시여 새 세기 교육혁명을 진두에서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그분들의 손길아래 활짝 펼쳐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있어 우리 조국의 미래는 더없이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나는 여러차례에 걸친 조국방문과정에 깊이깊이 절감할수 있었다.

오가자의 삼성학교

조국에 갓 체류하던 어느날 나는 평양의 이름난 국립연극단에서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를 관람하는 기회를 가질수 있었다.

안내원에게 왜 혁명연극이라고 하는가 그 연유를 물었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혁명적인 연극이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대에 벌써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신 주석님께서는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하기 위한 대중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는데 《딸에게서 온 편지》도 그 시기에 창작하신 연극이라는것이다.

이 연극이 1927년 겨울 무송에서 창조공연되고 1930년대에 오가자를 비롯한 카륜, 고유수 등 여러 지방에서 광범히 공연되였으며 1980년대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지도로 혁명연극으로 재창조되였다는것도 그의 이야기이다.

나는 아주 흥미있게 또 주의깊게 연극을 관람했다.

훌륭했고 배우는바가 컸다.

대중계몽문제, 인민대중의 의식화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은 광명이고 무식은 암흑이라는 생활의 진리를 해학적인 웃음속에서 깊이있게 밝혀주고있는 작품은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지킬수 없고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창조적역할도 수행할수 없다는 사상을 강조하고있었다.

이야기를 정극적으로 끌고나가면서도 거기에서 웃음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정극적인 생활과 희극적인 생활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웃음과 정서도 있고 사색도 있는 새로운 형상의 작품이였다.

연극을 본 소감에 대한 이야기는 저녁식사시간에도 계속 이어졌다.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나는 안내원에게 오늘 또 한번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주석님께서 창조하신 연극도 훌륭하지만 그런 훌륭한 작품들로 대중을 의식화하신 주석님은 얼마나 현명하신가 하는것이 나의 생각이였던것이다.

안내원은 나의 말에 수긍하면서 주석님께서는 연극만 창작하신것이 아니라고, 노래도 짓고 가무도 창작지도하시였다고, 때로는 교원이 되시여 직접 강의안도 쓰시고 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을 가르치기도 하시였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들을수록 점점 더 호기심이 생기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유격대원이라면 알만 하겠지만 아동단원이란 또 뭔가.

안내원은 설명했다.

1930년대 전반기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서 아동단이 무어졌는데 여기에는 항일유격대원들의 자식들을 비롯하여 원쑤들에게 부모를 잃은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로서 조국을 사랑하고 원쑤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며 적과 용감하게 싸울것을 각오한 어린이들(8살—15살)이 망라되였다고 한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아동단원들의 생활은 물론 일제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난 유격구마다에 그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주시고 무료로 공부시키시였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싸우는것만도 과연 헐한 일이 아닌데 주권도 국가적보장도 없는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무료로 공부까지 시킬수 있겠는가.

더우기 1930년대라면 어떤 때인가.

일제가 조선사람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과 애국심이 자라는것을 막고 조선민족을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교육기관들을 독차지하고 조선사람들에게 학교문을 열어주지 않던 암흑의 세월이 아니던가.

안내원은 한두마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제2권)를 읽으면 잘 알수 있노라고

귀띔해주었다.

조국의 무료교육제도와 시책에 대하여 감탄하고있던 나로서는 그것을 깊이있게 아는것이 교육자로서 응당한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날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

나는 그 전날의 호기심이 사라지지 않은터라 아침식사를 마치기 바쁘게 안내원이 이미 가져다놓은 위대한 주석님의 회고록과 함께 1930년대에 주석님께서 마련해주신 혁명적학교들에서 무료로 공부한 사람들의 회상기를 읽기 시작했다.

듣던바대로 주석님의 회고록에는 무료교육의 시원이 어떻게 마련되게 되였는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적혀져있었다.

여기에 그 이야기를 간략하여 적는다.

중국의 동북지방의 장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200여리 떨어진 외진 곳에 오가자라는 마을이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30년 10월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꾸리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오시였다.

처음 다섯집이 모여서 살았다는데로부터 오가자라는 이름이 붙은 이 고장은 민족주의자들이 《리상촌》을 건설한다는 소문을 내면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300여호의 주민지로 되였다. 당시 완고한 민족주의자들이였던 이 마을의 유지들은 《리상촌》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외부와 담을

쌓고 이 고장에 저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 그 어떤 사상조류도 침습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마을의 이러한 실정을 료해하신 주석님께서는 먼저 변대우로인을 비롯한 이 마을 유지들과의 사업을 진행하시였다. 그이의 높으신 인품과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 사리정연한 론리와 해박한 지식앞에 마을의 유지들은 머리를 숙이게 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리상촌》건설이란 한갖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이렇게 오가자를 혁명촌으로 꾸리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으신데 기초하여 주석님께서는 마을의 대중단체들과 지방자치행정기관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도록 하시는 한편 오가자인민들을 계몽하고 교양하는데 많은 힘을 넣으시였는데 그중에서도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신것은 교육사업이였다.

오가자에는 이미 민족주의자들이 세운 6년제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처음에 오영학교, 삼중학교로 부르다가 그후 삼성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고루한 민족주의사상을 가르치고있었으며 학과목도 낡은 봉건제도와 봉건도덕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찬 《수신》, 《대동력사》 등이였다.

그나마 월사금을 바쳐야 했기때문에 돈이 없고 가난한 집의 자식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있었다.

마을의 이러한 교육실태에 대하여 알아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삼성학교를 혁명적으로 개편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시였다.

주석님께서는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지하조직성원들가운데서 유능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삼성학교 교원으로 배치하시였다. 그리고 가난한 농민들의 자녀들을 새로 받아들이도록 하시였으며 월사금제를 페지하고 면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학교의 교육내용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설교하는 낡은 학과목대신 일반과목과 정치과목들이 새롭게 선정되였다. 일반과목에서는 국어, 산수, 조선력사, 지리를 가르쳤고 정치과목에서는 《사회진화론》, 《레닌주의제문제》 등을 수준에 맞게 취급하였다. 학교에서는 군사교육도 하였는데 학생들은 소년탐험대와 소년선봉대에 망라되여 조직생활을 하였으며 수업후이면 웅변대회, 토론회, 선전사업, 연예대활동, 체육활동, 군사훈련, 밀정감시, 통신련락, 부락경비사업 등에 참가하여 자신들을 혁명가로 준비해나갔다. 학교의 유지비는 마을의 자치위원회에서 대주었다.

그리하여 그해 겨울부터 취학년령에 해당하는 오가자의 모든 아이들이 월사금을 내지 않고 학교에 다닐수 있게 되였다.

돈이 없어도 글공부하는 세상, 그것만으로도 오가자는 마을사람들에게 있어서 리상촌이였다. 좋아라고 학교로 뛰여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오가자의 인민들은 세상에 없는 면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여 자식들을 마음껏 배우게 하려는 자기들의 평생소원을 풀어주시였을뿐아니라 그들모두를 혁명가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주석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그때를 회고하시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가 후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의무적인 면비교육에 대한 조항을 하나 넣기는 하였지만 사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무료교육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실천에 옮긴것은 고유수, 카륜, 오가자에서였다. 오가자의 삼성학교는 카륜의 진명학교, 고유수의 삼광학교와 더불어 우리 나라 교육력사에서 첫 면비교육이 실시된 의의깊은 교육기관이였다.》

항일혁명투쟁의 개척기에 오가자의 삼성학교에서 실시된 첫 면비교육.

그것이 전반적인 무료의무교육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뿌리였다는것을 나는 알수 있었다.

당시 카륜의 진명학교 학생이였던 사람은 그때를 회상하여 이렇게 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륜에 오신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마을에서는 <무식은 수치이고 아는것이 힘이다>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강연이 있은 후 마을에서는 진명학교에서 입학금과 월사금을 한푼도 받지 않고 학생들을 공부시킨다는 꿈같은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대로 앉아있을수가 없어 이튿날 진명학교로 찾아갔다.

(김성주선생님께 입학시켜주실것을 직접 말씀올리면 소원을 풀수 있겠지. …)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밀어놓으시고 어서 들어오라고 하시며 나를 반가이 맞아주시는것이였다. 나는 너무도 허물없이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소탈하신 풍모앞에 어려움도 잊고 우리같이 가난한 농사군의 자식들을 돈 한푼 받지 않고 공부시켜준다는것이 정말인가고 문의하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잘 믿어지지 않는가고 하시였다.

의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진명학교에서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배우려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공부시킨다는것과 바쁜 농사철에 일손이 모자라는 집 어린이들은 집일을 도우면서 공부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가 그동안 야학을 다니며 글귀를 좀 익혔다는것을 아시고 학교선생을 부르시여 잠시 의논하시더니 나를 3학년에 편입시켜주시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여 나는 소원대로 진명학교에 다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와 보살핌속에서 나는 진명학교를 마칠 때까지 돈 한푼 내지 않고 교과서와 연필, 학습장을 비롯한 학용품을 무료로 공급받으면서 마음껏 공부할수 있었다.》

오늘도 공화국의 무료의무교육제도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오가자의 삼성학교와 카륜의 진명학교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주권도 국가적보장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신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함에 머리숙이게 됨을 금할수 없다. 더불어 많은 나라의 대통령들이 주석님을 따라 배운다면 무료교육을 실시 못할 조건이란 없다는것을 생각키도 한다.

훌륭한 교육제도는 곧 탁월한 수령에 의해 마련되는것이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테제(theses)란 용어는 력사적으로 당파들과 학파들, 정당들과 정치조직들이 여러가지 의미로 써오다가 결국 사회정치적문제에 대한 자기의 립장과 주장을 천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침과 방도들을 밝히는 강령과 같은 의미로 쓰게 되였다.

테제는 강령과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테제에 투쟁목표와 과업이 밝혀져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강령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강령은 주로 사명과 목적, 임무를 규제한것이지만 테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자기의 립장과 그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과 방도들을 론리정연하게 밝혀준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테제에 규정된 방향과 방도들은 해당 나라 집권당의 확고한 립장과 주장을 집대성한것이며 그것은 테제가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 테제에 규정된 방향과 원칙들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완전한 생명력을 가지는것이다.

내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2001년 9월 5일이였다. 날자까지 꼬박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는 사연이 있다.

이날 동료들과 함께 거리에 나섰는데 유난히 눈에 띄우는 것이 있었다.

하얀 체육모나 빨간 체육모를 쓰고 앞가슴에는 《번개》나 《우뢰》라고 쓴 카드를 달고 좋아라 웃고 떠드는 귀여운 아이들이였다. 아마 운동회를 하는거라고 나는 짐작했다. 운동회날이면 새벽부터 부산을 피우며 붕 떠있던 딸자식의 어릴적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들 오늘 운동회를 하느냐?》

《그래요.》

아이들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와 동행하던 안내원은 9월 5일은 교육절이라고 하면서 이날이면 온 나라의 모든 학교들에서 운동회가 진행된다고 이야기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1977년 9월 5일에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다고 한다. 테제가 나옴으로써 교육발전의 일대 전성기가 열리게 되였다는것이 그의 이야기이다.

나는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다른 체제에서 살고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나에게 있어서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한다.

곧 나는 안내원에게 부탁하여 테제를 탐독하게 되였다.

주석님께서 작성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원칙들로부터 사회주의교육학의 내용과 방법, 사회주의교육제도, 교육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교육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었다.

주석님께서는 교육테제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교육리론과 방법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교육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과학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인류정치사의 갈피를 번져보느라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향과 방도를 명제화한 테제들이 수없이 발표되였지만 인간개조를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교육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는 테제가 발표된 나라는 오직 우리 공화국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교육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완성

하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는데 참으로 뜻이 깊었다.

주석님께서는 교육테제에서 이같이 밝히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며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주석님께서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은 교육테제에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토대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화국에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력사적뿌리와 그 확립의 합법칙적로정을 밝히시였으며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건설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며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라는데 있다는것을 밝히시였다.

나는 모든 나라의 교육자들은 물론 정치인들에게 이 테제를 읽어볼것을 권고하고싶다.

그것은 사회주의교육테제가 교육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교육학을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도록 하는 과학적인 교육학설이기때문이다.

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본 교육자이다.

몇해전 과학과 기술이 앞선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보았는데 그 나라에 면목이 있는 교육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나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였다.

이 나라에서는 대학진학률이 해마다 둔화되고있는데 그 리유인즉은 이러하다. 대학을 나와서 돈을 버는것과 고등학교만 나와서 돈을 버는것을 타산해보면 고교만 다닌것이 월등하게 리롭기때문이라는 경제적타산이 크게 작용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 나라에서 대학 4년동안에 드는 교육비는 가장 헐하게 잡아 30 000US$가 보통인데 고등학교만 나와서 취직하면 밥값, 옷값, 세금을 다 치르고도 4년동안의 실수입은 24 000US$, 곧 대학에 진학하지 않음으로써 소비되지 않은 30 000US$+24 000US$ 하면 54 000US$를 4년만에 버는것으로 된다는것이다.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고 돈버는 구멍수만 찾아다닌다는것이다.

그는 자기 나라 젊은이들의 세계관이 왜 점점 이상해지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사회주의조국의 교육제도와 현장을 편답해본 나는 그 리유를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교육제도와 나아가서 사회제도에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사람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할 권리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계적범위에서 그것이 원만히 보장되지 못

하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이 문제가 특별히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미국에서는 약 600만명에 달하는 24살미만의 청소년들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는 학비때문에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있으며 매해 고등학교 학생 120여만명이 학비난으로 중퇴하고있다.

여러 나라들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제한조건이 많은 형식적인것으로서 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있다. 한편 일하면서 공부하는 고등교육의 형태가 발전하면서 위성통신과 인터네트에 의한 원격교육이 광범히 적용되고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상업화와 리윤추구에 목적을 둔것이지 근로자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자는것은 아니다.

아무리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것을 계발시켜주고 전적으로 맡아 키워주는 교육제도와 그것을 보호하는 사회제도가 아니라면 그들의 희망과 포부가 높다한들 열매를 맺을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에게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의 내용과 내가 본 조국의 교육현실을 알려주면서 당신네 나라는 지금은 발전한것 같지만 미래가 없다, 하지만 공화국의 교육제도는 그 력사와 전통부터가 다른 나라들과 엄격히 구별된다, 참다운 미래가 있는 나라는 사람중심의 사회

인 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때 조선사람이 된 긍지가 얼마나 뿌듯했던지…

주석님께서 교육테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4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 공화국에서는 절세위인들의 세심한 손길아래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빛나게 실현하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를 훌륭히 건설하여왔다.

위대한 주석님의 뜻을 받들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고 하시며 나라의 교육발전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사회주의교육테제발표후 각급 학교들이 늘어나고 초등 및 중등교육체계와 고등교육체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더욱 정연하게 세워졌으며 수재교육체계까지 확립되여 전체 인민이 학습할수 있는 조건이 그쯘히 마련되게 되였다. 교육에서 주체가 확고히 서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형식,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였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교육이 유기적으로 밀접히 결합되고 나라의 제일 좋은 곳들에 소년궁전과 야영소를 비롯한 과외교육교양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섰다.

오늘 조국의 교육제도는 또 한분의 위인에 의해 새로운 전

변의 시대를 맞이하고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나가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새시대이다.

새 세기 교육혁명

새 세기 교육혁명.

이 말속에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에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가는 북부조국의 교육의 현실이 다 담겨져있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새 세기 교육혁명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에 대하여서부터 시작해야 옳을것 같다.

사실 조국에서는 벌써 오래전인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의 나날에 동방에서 제일먼저 전반적인 초등의무교육제와 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다.

세상을 둘러보면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많지만 무료

교육을 안받침한 의무교육을 온 나라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11년이나 실시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였다.

나는 조선사람으로서 이에 대하여 대단한 자긍심을 느끼군 했다.

그러던 2012년 9월.

조국에 체류하고있던 나는 놀라운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그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새롭다.

조국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법령이 발포되였던것이다.

아마 나뿐이 아니라 조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생소한 초보자들도 놀라움과 의혹을 동시에 느낄것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투자중의 가장 큰 투자를 요구하는것이 교육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때문에 경제가 발전되였다는 나라들에서도 감히 교육기간을 연장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다.

그런데 아직은 부족한것이 적지 않은 조국이 1～2년도 아니고 3～4년도 아닌 11년간의 전반적의무교육에서 12년으로 1년 더 늘인다니 왜 놀랍지 않겠는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여있는 중대한 조치로서 공화국이 교육강국, 발전된 문명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한 일대 사변이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1년동안의 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 3년제초급중학교, 3년제고급중학교에 이르는 12년동안의 체계적인 교육기간에 일반기초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을 새 세대들에게 배워주어 그들의 중등일반교육을 완성시켜주는 의무교육인것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강국건설의 유능한 인재들을 키운다는데 그 정당성과 우월성이 있다고 본다.

조국에서는 2014년부터 중등일반교육부문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이 집행되였으며 2017년부터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있다고 한다.

과학기술지식의 년평균장성률이 계속 오르고있는 현시점에서 교육기간을 1년만 늘여도 나라의 경제장성률이 비할바없이 늘어난다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분석자료에 비추어볼 때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의 실시로 하여 조국은 더욱더 강대해질것이라는 신심과 믿음을 갖게 되였다.

그 믿음은 그로부터 2년후에 울린 새 세기 교육혁명의 포성과 함께 더욱 확고한것으로 굳어지게 되였다.

2014년 9월 5일, 평양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37돐을 맞으며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가 열리였다.

대회와 관련한 소식에 접한 나는 즉시에 인터네트를 통해 대회관련자료를 열람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당연히 대회참가자들에게 보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에 초점이 집중되였다.

나는 로작의 진수를 나름대로 파악해보고저 자자구구 정독도 하고 로작과 관련한 기사들을 망에서 탐독하면서 현시기 조국에서 교육을 얼마나 중시하고있으며 또 교육혁명의 목표와 그 중요내용, 실현방도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백하게 알게 되였다.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요구에 비해볼 때 나라의 교육사업이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있다는데 대해 분석총화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대수령들의 교육중시사상과 령도업적을 충직하게 받들고 주체혁명의 만년토대를 공고히 하며 부강조국건설에서 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혁명을 일으킬것을 결심하였다고 하시면서 구호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를 제시하시고 새 세기 교육혁명의 력사적포성을 울리시였다.

예로부터 한해 일을 궁냥하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고 10년을 계획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하며 100년을 내다보려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오한 웅지가 담겨져있는 이 구호는 나에게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한 나라 령도자의 현명성은 오늘만이 아니라 먼 앞날까지 과학적으로 통찰하는 선견지명과 천리혜안의 예지에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생산은 오늘, 과학은 래일, 교육은 모레》라는 격언이 있듯이 교육발전은 나라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따라 국가의 존망과 장래가 결정되고있는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교육정책을 개선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 등 교육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어린이 5명당 1명을 수재로 키운다는 목표를 내걸고 수재교육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실시하는가하면 학생들의 지능과 창발적사고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교육방법을 고쳐나가는 나라, 교육과 과학, 산업의 련계를 밀접히 하며 재교육체계를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들

도 적지 않다.

허나 그러한 교육정책이나 시도들은 교육발전의 일부분에 국한될수밖에 없는 제한성을 가진다.

누구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을 정독하면 공화국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가장 과학적인 교육정책이라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바로 그 로작에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와 교육혁명의 기본고리와 중심과업, 그 실현을 위한 수행방도들에 대하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세계교육발전추세에 맞게 명철하게 밝혀져있기때문이다.

그럼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국가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공화국을 21세기 교육강국으로 되게 하자는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자라나는 새 세대들과 인민들모두에 대한 전적인 책임감을 지니고 그들을 공부시켜주는 인민중심의 사회, 조국에서만 내놓을수 있는 통이 큰 목표이며 물질적부를 자랑하는 그 어느 나라들도 감히 엄두를 낼수 없는 사회주의교육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고있는 공화국에서만이 내놓을수 있는 현실성있는 목표라고 나는 생각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교육혁명수행의 기본고리

를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새형의 인재들을 원만히 키워낼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완비하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교육조건과 환경의 근본적인 혁신문제 등 교육혁명수행에서 나서는 과업들뿐아니라 그 실현에서 나서는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명철하게 제시하시였다.

한자한자 로작의 그 의미를 새겨보면서 나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는 주체적인 립장과 안목에서 사회주의교육의 본태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좋은 경험들을 나라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이고 자기식으로 발전시켜 교육에서도 당당히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원칙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교육체계를 완비하는 문제에 대한 해명만 놓고봐도 잘 알수 있다.

새 세기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기틀을 바로세우는 사업이 다름아닌 교육체계를 완비하는것이다. 이것은 교육혁명수행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조국에서 이미 전반적의무교육기간을 한해 더 늘이고 교종들을 새롭게 정비한데 맞게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원만히 실시되여 은을 낼수 있도록 중등일반교육체계를 더욱 개선완

성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중등일반교육의 교종들과 교육과정을 조국의 실정과 세계적발전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고 개선해나갈데 대한 문제,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따르는 교육을 여러가지 형태로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하는 문제, 중등일반교육에서 수재교육에 힘을 넣으면서도 일반교육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방향에서 교육체계를 보강함으로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기간에 모든 학생들이 강국건설에 실지로 이바지할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체득하고 앞으로 일생동안 공부를 계속할수 있는 기초를 다지도록 할데 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고등교육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세계적추세에 맞으면서도 강국건설에 요구되는 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낼수 있도록 정비하는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데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였다.

지난 세기 공업경제시대의 대학, 전문학교교육체계의 틀에 머물러있는 고등교육체계의 제한성을 대담하게 극복하고 강국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학술형인재들과 실천형인재들을 많이 키울수 있게 고등교육체계를 갱신하고 완비할것을 제기하였다.

점차 전문학교들을 대학들에 통합할것은 통합하고 직업기술대학으로 전환할것은 전환시켜 고등교육의 전반적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문제, 중요대학들을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이 하나로 밀착된 지식경제시대의 일류급대학으로 발전시키고 그 대학들을 본보기로 하여 모든 대학들을 추켜세울데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공화국에 세워진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도 그 교육수준을 높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를 실현하는데서 한몫하도록 하며 정규화된 직업기술교육체계를 확립하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의 체모에 맞게 그리고 세계를 따라앞서는 교육체계를 완비함에 있어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이는 사회주의교육제도에서만이 실현될수 있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공생하고있는 자본주의교육제도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이렇듯 높은 수준의 교육체계를 완비하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교육혁명의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적마다 과학교육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시며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주시고계신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발표 40돐이 되는 2017년을 과학교육의 해로 지정해주시였으며 그 다음해인 2018년을 또다시 과학교육의 해로 정해주시고 그해의 첫 현지지도의 자욱을 국가과학원에 새기신데 이어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8년 4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는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체의 과학기술력과 교육수준이 높아야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수 있고 자주성도 견지할수 있다고,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시고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과학기술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시키고 교육사업에서의 대혁명으로 조국과 민족의 강성번영의 대로를 열어나가시려는 그이의 드팀없는 혁명적립장의 발현이다.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할데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

적담보이라고 하시면서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교육으로 밝은 미래를 앞당기시려는 그이이시기에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교육발전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것이 아니겠는가.

내 기억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는 하나의 표현이 있다.

2018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였을 때에 있은 일이다.

당시 군안의 건설장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읍의 교육실태에 대하여 알아보시면서 도들에서 교육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인재는 나라의 재부인 동시에 도, 시, 군의 발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후대교육사업을 농사에 비유하면 인재농사라고 할수 있다고, 감자농사만 과학화, 집약화할것이 아니라 인재농사도 과학화, 집약화하여 도들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재농사!

인재농사도 과학화, 집약화!

안내선생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들으면서 나는 마음속

으로 련속 탄사를 터뜨렸다.

후대교육사업을 단 한마디 어휘로 통속화하시고 인재농사도 과학화, 집약화하여야 한다고 깨우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시고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정녕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교육의 영재이시다.

명당자리, 명승지마다에

명당이란 흔히 필요한 객관적조건을 다 갖춘 좋은 땅으로서 예로부터 누구나 탐내는 곳으로 일러왔다.

현대에 와서도 그 관념은 사라지지 않아 어느 나라나 할것없이 그 나라의 제일가는 명당자리에는 정부급건물들이 들어서거나 가문의 영광, 기업의 번성을 바라는 재벌들의 집이나 별장, 유흥장 등이 독차지하는것이 상례로 되여있다.

명승지도 마찬가지이다.

요산요수라 산수의 경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조국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였다.

제일 좋은 명당자리와 명승지에 아이들을 위한 궁전과 야영소들이 꾸려져있는것이다.

나의 눈앞에 제일먼저 떠오르는 명당자리는 평양의 이름난 장대재이다.

해발높이 35㎙로서 평양의 남서쪽의 남산과 북쪽의 만수대와 서로 잇닿아있는 장대재.

장대재는 하나의 큰 구릉으로 되여있으며 경치좋고 전망이 참으로 기막힌 곳이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우뚝 일떠서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는것이 다름아닌 아이들의 궁전—평양학생소년궁전이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 어느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대동문영화관에서 어린이들이 준비한 설맞이공연을 보아주시였다.

시종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공연을 보아주시던 주석님께서 문득 곁에 있는 일군들에게 이야기하시였다.

아이들이 뛰놀기에는 대동문영화관이 너무 좁은것 같다고.

그러시고 무릎우에 앉히신 어린이에게 물어보시는것이였다.

《새 궁전이 있으면 좋겠지.》

기쁨에 넘쳐 씩씩하게 대답하는 어린이.

《예, 좋습니다.》

그 아이를 정겹게 바라보시는 주석님의 심중에는 아이들의 화려한 궁전에 대한 념원이 꽉 차있었다.

해방후 애국적인 상공인들이 삼가 올린 건국희사금으로 평양의 명당자리로 불리운 장대재에 아이들의 궁전을 짓도록 하시고 개관을 앞두었던 궁전이 전화의 불길속에 페허가 되였을 때에는 대소한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곳을 찾으시여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궁전을 더 크고 더 훌륭하

게 지어줄 구상을 펼치시던 **김일성**주석님이시였다.

뜻깊은 그날에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제일 좋은 곳에 아이들을 위한 궁전을 제일 크고 제일 높게 지어주자고 하시며 아이들에게 새로 지은 궁전에서 다시 만나자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궁전건설이 진행될 때에 주석님께서는 건설장도 찾으시여 우리가 그전에 산에서 싸울 때부터 아이들을 위해 궁전을 세워주자고 늘 이야기해오지 않았는가, 대리석이건 금강석이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축재료들을 다 가져다가 말그대로 궁전을 지어주자고도 하시였다고 한다.

하여 1963년 9월 연건축면적이 5만㎡에 달하는 웅장화려하고도 현대적인 건물에 각종 소조실들과 극장, 체육관, 도서관 등을 갖춘 종합적인 과외교육교양기지로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일떠서게 되였다.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는 해마다 많은 과학자, 기술자, 예술인, 체육인후비들을 키워가고있다.

과외교육교양기지에서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펴고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온 어제날의 소조원들속에서 수많은 로력영웅, 박사,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 인민배우, 공훈배우,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들이 배출되였다.

조선의 명승 송도원도 떠오른다.

필자도 편답하여보았지만 송도원은 거울같이 맑은 동해의 푸른 물결, 뜨거운 해빛에 눈이 부신 백사장, 그우에 떨기떨기 피여난 붉은 해당화와 그리고 지심깊이 뿌리를 내리고 푸른 가지를 펼친 락락장송들이 천연의 조화를 이루고있는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동해의 명승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한때 일부 설계일군들이 그 자리에 외국의 국가수반들이 와서 묵게 하는 정부초대소나 내각휴양소를 지으려고 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아시게 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그러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가 참으로 명당자리이라고,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 일대의 공기가 참으로 좋다고 한다고, 그렇게 공기가 좋다면 아이들의 야영소를 지어주어야지 어른들 휴양소를 짓는다는것이 말이 되는가고, 정부초대소나 내각휴양소를 다른 곳에 짓도록 하고 거기에 소년단야양소를 지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고 야영소의 안내선생이 들려주었다.

오늘 학생들의 과외교육을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가르치심에 의하여 더 손색없이, 더 훌륭하게 꾸려졌다.

언제나 어린이들에게 제일 큰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현대적으로 개건할데 대해 발기하시고 몸소 현지에 여러차례 나오시여

개건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그리고 개건된 야영소가 준공하는 날에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에서 수백리 멀리 떨어진 이곳 야영소를 찾으시여 준공식에 참가하시고 온 하루동안 아이들과 함께 계시면서 기쁨을 나누시였다고 한다.

2018년 8월에 내가 참관해본데 의하더라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전자오락실과 도서실, 미술실, 솜씨전람실과 물놀이장, 체육관과 야외활쏘기장을 비롯하여 모든 시설들이 최상급의 조건에서 갖추어져있는 종합적인 야영기지이다.

2019년 5월 인터네트에 실린 한 기사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지난 5년간에 6만 3 000여명의 국내외학생소년들이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조선의 아이들만이 아니라 외국의 어린이들도 즐겨 찾는 곳이다.

미국의 CNN방송은 언제인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소개하면서 《여름에 벌찬 자식들을 달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는지. 그런 자식들을 조선으로 떠나보내라고 권고하고싶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통해 본 조선의 현실은 서방의 악선전과는 얼마나 판이한가. 아이들의 왕국인 조선의 현실을 엿보게 하는 산 증거이다. 야영생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오아시스와 같다.》라고 평하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참관하고 돌아온 날 나는 나의 심정을 일기장에 이렇게 담았다.

《…조국에서는 다른 나라 같으면 특권층의 자식들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할 최상급의 야영소들에서 로동자, 농민, 탄부 등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이 지식의 탑을 쌓아가고 재능의 열매를 꽃피워가고있다.

국가의 보살핌과 혜택속에서 자란 그들은 어려서부터 보답의 마음을 안고 성장한다.

바로 그 마음은 애국주의로 성장하게 되고 자기를 키워준 고마운 조국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치는것이다.》

후날 이런 느낌을 또다시 받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

2019년 4월 나는 공화국에서는 물론 남조선과 해외에 휘파람가수로 널리 알려져있는 보천보전자악단의 가수였던 전혜영과 만나는 기회를 가지였다.

그는 지금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성악지도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참관을 마치고 전혜영을 만나 장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던 나는 그에게 화려한 무대를 내려 아이들을 가르치고있는것이 좀 서운하지 않은가고 물었었다.

마흔을 썩 넘긴 얼굴이지만 아직도 복스러움이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20대나 다름이 없이 맑았다. 역시 명가수임

을 확인하는 순간이였다. 그가 부른 《휘파람》의 노래소리가 귀전에 들리는것 같기도 했다. 그는 물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때도 잊을수 없지만 나라의 왕들을 가르치는 지금도 너무나 행복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는 탄광로동자, 어머니는 중학교 문학교원인 그야말로 평범한 집안의 자신이 오늘날 온 나라가 다 아는 가수로 자라날수 있은것은 그 싹을 찾아준 고마운 선생님이였고 그 싹을 꽃피울수 있도록 훌륭한 교육제도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국가의 혜택때문이라고 절절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 은덕에 보답하는것은 당연한것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중한 보배들인가는 온 나라의 제일 좋은 명당자리들에 아이들을 위한 궁전이 솟아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이 이야기했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 나라가 그처럼 어렵던 고난의 날에도 아이들의 궁전의 불빛만은 한순간도 꺼질줄 몰랐다고, 오늘도 아이들은 그 사랑, 그 은덕을 노래로 전해가고있다고.

내가 그 노래를 들려줄수 없겠는가고 하자 그는 소조의 한 남학생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고 자신이 직접 피아노반주를 했다.

단정하게 생긴 남학생의 노래소리는 마치 성악콩클경연에 나선 경연자를 방불케 했다.

…
재를 털고 학교를 먼저 세웠고
야영소와 궁전도 세워주신 대원수님
불밝은 궁전 봐도 힘이 솟는다
아이들을 왕이라 불러주셨네
아 우릴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대원수님 우리 해님 천만년 빛나라
…

얼마나 노래를 절절하게 부르는지 나의 가슴도 찌르르 울렸다.

불밝은 궁전 봐도 힘이 솟는다시며 아이들을 왕이라 불러주신 **김일성**주석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이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온 나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주석님께서 아이들에게 바치신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운것이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재청을 요구하는 나에게 어제날의 가수는 쾌히 요청을 받

아들이며 소조 전체 성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공화국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하는 노래라고 주해를 달면서…

귀에 퍽 익은 노래였다.

4월도 봄명절 우리 장군님
초소의 병사들 찾아가는 길
야영을 떠나는 아이들 보며
차창에 손저어주시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
장군님앞에는 험한 산고지
아이들앞에는 해솟는 바다
솔숲의 아이들 멀어지여도
4월의 봄빛이 내리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밝고 명랑한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는 할수 없는 조건에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가는 곳마다 아이들을 위한 궁전과 야영소를 세워주고 그들의 꿈을 고이 지켜주시는 위대한

어버이가 계시기에 저 아이들은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는것이 아닌가.

분교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이란 혼자서 성장할수 없다.

크게 나누어보면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성장한다고 말할수 있다. 그가운데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것은 학교이다. 더우기 부부간이 다 직장에 나가는 경우 학교는 아이들에게 집보다 더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곳으로 된다. 아이들과 학교는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학교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서 교원이 가리키는 칠판을 바라보는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그런데 아이 한명이 책상에 앉아있고 그 한명을 위한 교사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구나 그 아이는 분명히 보통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할것이다. 어쩌면 특강을 받는 수재를 떠올린다거나 아무튼 특수한 아이인것만은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것이다.

나도 처음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그 아이는 결코 특수한 존재가 아니였다.

평범한 부모들을 둔 평범한 아이에 불과했다. 평범한 아이가 세상이 다 아는 그 《특수한 존재》로 된것이다.

조국의 최북단 한끝에 자리잡고있는 라선시 선봉지구 선봉소학교 알섬분교.

지도상에 점으로 표시되여있고 뭍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이곳은 인적드문 곳이였다.

섬에는 불과 4명의 등대원과 그의 가족이 살고있었다.

그러던 어느해 한 등대원의 아들이 소학교입학을 앞두게 되였다.

섬인것으로 하여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집을 떠나 뭍에 나가 생활하여야 하였다.

개학날을 앞두고 어린이는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지만 어린 자식을 홀로 뭍에 가 공부시키게 된 그의 부모들에게는 걱정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그들에게 날아들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 섬에 분교를 내오도록 하시였다는것이였다.

이곳 섬마을사람들의 형편을 알아보시려 한 일군을 파견하시였던 그이께서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어찌 섬이 뭍만

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섬마을사람들을 위하여 큰 물저장탕크도 만들어주고 또 가정들에 천연색TV와 문화오락기재도 다 갖춰주자고 하시였으며 평양견학도 해마다 조직해주자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못다 준 사랑이 있으신듯 뭍에 나와서 부모들과 떨어져 공부하게 된 아이를 위해 분교까지 세워주도록 하신것이다.

하여 조국의 최북단에 위치하고있는 알섬에 한명의 학생을 위한 학교가 서게 되였고 그를 가르치는 교원이 찾아왔으며 날마다 부모의 정다운 바래움을 받으며 매일 아침 등교할수 있게 되였다.

외진 섬에서 배움의 첫 종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지던 그날 등대원들과 가족들은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다고 한다.

무료의무교육제도의 혜택아래 자식들을 돈 한푼 내지 않고 공부시키는것만도 고마운데 아이들을 뭍에 두고 멀리 떨어져 사는 등대섬사람들의 남모르는 고충도 헤아려주시는 장군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였다.

이것은 내가 처음 조국에 체류하고있던 어느날 어느 잡지에서 읽었던 글의 내용이다.

한명의 아이를 위한 사랑의 학교가 있다는 글을 읽었을 때 정말 놀라움과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저녁식사때 동료들앞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였는데 동료들중 조국과 오랜 구면지기인 한사람이 공화국에는 한명이 있건 두명이 있건 아이들이 있는 곳마다에 그들을 위한 분교가 있다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내흔드는것이였다. 그리고 통학조건이 불리한 곳에는 통학뻐스와 통학렬차가 있어 아이들은 불편을 모르고 학교를 오간다는것이였다.

조국은 과연 아이들의 천국인가.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학교가 한두개 있다 해도 감동할만 한 일인데 그렇게 많은 분교들이 있다니 왜 놀라지 않겠는가. 여직껏 살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설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그냥 스칠수 없었다.

하여 다음날 안내원을 만났을 때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사실인가고, 잘 리해가 되지 않는다고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다.

특별히 부유한 나라도 아닌 조국이 대체 무슨 수로, 무엇때문에 한두명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워주고 몇명 안되는 아이들을 위해 통학뻐스와 렬차를 보내주고 선생을 보내는지 아무리 타산해봐도 리해가 되지 않았기때문이였다. 지금에 와서는 웃을 일이지만 조국에 대한 지식이 빈곤한 초학도인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오직 경제적인 타산으로밖에 달리 계산이 되지 않았던것이다.

안내원은 우리 조국을 처음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솔직히 조국을 처음 찾는 사람의 안내를 맡았을 때가 제일 힘들답니다.》 하고 롱섞인 어조로 웃으며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에 분교가 생기게 된 력사는 오랜데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선생이 리해를 빨리 할수 있을가요?》 하고 잠시 생각을 굴리더니 이런 이야기부터 들려주는것이였다.

그의 이야기는 곧바로 1947년 해방을 맞이한 조국땅이 환희와 기쁨으로 설레이고 새 생활창조에 일떠선 인민들의 힘찬 노래소리가 온 강산을 울리던 그해 9월로부터 시작되였다.

인민의 새 나라를 세우시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두메산골 양덕땅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길가에서 몇명의 학생들이 한데 몰켜 서성거리고있었다.

그들에게로 다가가신 주석님께서는 무엇을 하는가고 물으시였다.

함께 공부하는 동무가 앞산에 있는 학교에서 내려오지 않아 기다리고있다는 그들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그리 높지 않은 산중턱에 성벽으로 둘러싸여있는 학교건물을 한동안 바라보시였다.

양암성이라고 일러오는 그 성안에는 옛날부터 향교가 있었

는데 마을에 새 학교를 지을 때까지 그 향교건물을 림시교사로 리용하고있었다. 그들은 모두 열대여섯살 나는 이 학교 학생들이였는데 집이 멀어 혼자 떨어지면 갈수 없기때문에 공부가 끝나면 이렇게 서로 기다렸다가 모두 함께 가군하였던것이다.

학생들의 말을 통하여 이러한 사연을 알게 되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근심어린 안색으로 제일 먼데서 다니는 학생의 집이 여기서 몇리나 되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그 물으심에 한 학생이 아호비령밑에서 다니는 동무도 있는데 거리가 약 40리가량 된다고 말씀드렸다.

허리에 흰구름을 두르고 저 멀리 아득히 솟은 아호비령쪽으로 눈길을 주신채 40리나 되는 곳에 다닌단 말이지, 너무 멀구만 하고 누구에게라 없이 조용히 되뇌이시던 그이께서는 그 먼데서 계속 통학하는가, 비와 눈이 많이 오는 때는 어떻게 다니는가, 학교로 오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등을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기숙사가 없기때문에 계속 통학한다는것 그리고 장마철과 추운 겨울날에는 며칠씩 남의 집에서 기숙을 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것, 아무리 빨리 걸어도 두세시간 걸리기때문에 집에서 첫새벽에 떠나고 밤늦게 돌아오며 어떤 때는 부모들이 광솔불을 켜고 마중오는 때도 있

다는것, 더구나 밤이 깊으면 고개길과 굽인돌이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기때문에 부모들이 항상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것, 그래서 먼저 집에 가지 못하고 모두 모여서 함께 집으로 간다는것 등 학생들의 말을 다 들으신 주석님께서는 정말 학교가 멀어 공부하기 힘들겠다고 걱정하시였다.

그러나 그중 나이먹어보이는 한 학생이 한발 나서며 《일없습니다. 해방전에는 학교에 가고싶어도 학교가 없어 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장군님께서 학교를 세워주시여 우리 같은 농사군의 아이들도 마음껏 공부할수 있게 되였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학교가 멀어도 공부할수 있으니 좋습니다.》라고 당돌하게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기특하신듯 그의 잔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시며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에 다니면 공부를 잘할수 있다고, 너희들의 말을 들으니 나도 좀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였다. 하지만 그이의 안광에는 더 짙은 그늘이 비끼였다.

머나먼 40리 학교길을 아침저녁 걸으면서도 공부할수 있으니 좋다는 꾸밈새 없는 천진란만한 학생의 대답에서 지난날 배움을 애타게 갈망하던 인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다시 읽으시며 그처럼 향학열에 불타는 어린이들을 해방된 땅에서 고생스럽게 공부시키는것이 가슴아프시였던것이다.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학생들의 옷차림을 바로잡아주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앞으로 면소재지에는 중학교를 하나씩 내오도록 하자고, 여기와 같이 산간지대에서 10리이상 먼데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분교를 내오도록 하자고 뜨겁게 이야기하시였다.

이어 주석님께서는 학생들이 아침에는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서야 하고 저녁에는 밤이 깊어서야 돌아온다니 이렇게 해서는 학습할 시간도 없거니와 피곤해서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에게는 적당한 휴식도 주어야지 지나치게 부담을 주면 공부도 잘할수 없을뿐아니라 한창 자라는 나이에 발육에도 지장이 있다고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나라가 해방된지 두해밖에 되지 않아 모든것이 부족하고 하여야 할 일도 많지만 무엇보다먼저 여기 실정과 같은 모든 곳에 하루빨리 분교를 내오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먼데서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주석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날 결사의 각오를 품고 천신만고를 다 겪으며 일제놈들과 피흘려 싸워 조국의 해방을 이룩한것도, 지금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부강한 새 조국을 건설하는것도 구경은 후대들을 위한것이 아닌가고 하시면서 후대교육사업을 위해서는 아낄것이 없다고 힘주어 이야기하시였다.

후대교육에 대한 그이의 숭고한 뜻이 어린 교시를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조국땅 그 어디에나 학교와 분교가 새로 일떠서 어린이들이 아무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날 창창한 미래를 그려보았다.

분교! 참으로 그것은 중중첩첩 시련이 가로놓였던 건국의 첫새벽에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었던 문제였다.

오직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만이 구상하시고 실현하실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배움터였다.

그때부터 공화국에는 분교가 많이 생겨났으며 오늘은 외진 섬마을이나 림산마을을 비롯하여 그 어디에나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면 사랑의 분교가 배움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반겨맞고있다.

안내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하지만 나의 뇌리에 깊이 박힌 분교에 대한 생각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분교, 그것은 단순히 몇명의 학생들을 위한 배움터만이 아니다.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며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공화국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의 축도였다.

나는 이것을 후날 체험을 통하여 확신할수 있었다.

민들레학습장

산과 들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민들레는 봄의 정서를 안겨주는 자연의 꽃이다. 하지만 조국인민들과 더불어 나에게 민들레는 특별한 꽃이다.

왜 그런가. 나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봄을 맞은 조국의 산과 들에 민들레가 피여나던 2016년 4월 27일. 새로 일떠선 민들레학습장공장에 대한 참관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날을 나는 몇해가 지난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년간생산능력이 5 000만권에 달하여 전국의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십종에 달하는 학습장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학습장생산기지인 민들레학습장공장.

우리를 맞이한 지배인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가 오기 바로 며칠전에 이 공장을 찾아주셨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단 한번만이라도 몸가까이에서 뵙고싶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공장이라고 생각하니 어쩐지 가슴이 설레였다.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흐름선화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이 현대적으로 일떠선 결과 학습장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고 이 공장 지배인은 설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5년 8월 학습장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형성안도 지도해주시였을뿐아니라 공장이름을 친히 《민들레학습장공장》으로 명명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고 한다.

공장을 찾으신 그날에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며 정말 기뻤다고, 질좋은 학습장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춤이라도 추고싶은 심정이였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배인은 이같이 이야기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질좋은 학용품들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는것은 그들의 가슴마다에 우리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면서 민들레라는 명칭을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의 가사를 읊으면서 지었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우리 동포들속에도 잘 알

려져있는 노래이다.

민들레 곱게 피는 고향의 언덕에
하얀 연을 띄우며 뛰놀던 그 시절
…

애국심은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데서부터 움터나는 사상감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자기의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는것은 조국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인것이다.

언제인가 나는 조국에서 출판된 한 도서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느 한 지방공장에서 학습장생산을 위해 만든 종이에 《내 나라》라는 친필을 남기시였다는 일화를 읽은적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국심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국심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부르시며 공장이름을 《민들레학습장공장》으로 명명해주신것이 아니겠는가.

이날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된 현장을 일일이

살펴보시던 원수님께서 민들레학습장공장의 생산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며 현대적인 공장이 일떠선 결과 학습장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는것도 지배인의 이야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공장에서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수십종에 달하는 학습장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모두 마음에 든다고, 종이의 질도 좋고 제책도 흠잡을데 없으며 도안도 학생들의 년령심리에 맞게, 과목별 특성에 맞게 잘하였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한해에 현재는 5 000만권, 앞으로는 1억 5 000만권의 학습장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어릴적에 어머니는 새 학습장이라 해도 정성스럽게 꼭 꿰매주군 하였다. 마치 나에게 새옷을 지어주듯이.

제책이 잘되지 않은데도 리유가 있겠지만 그것때문만이 아니였다.

왜 힘들게 꿰매는가고 물으면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이야기했다.

《우리 영란이가 공부를 잘하라고 그러지.》

언제인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

어린 마음에 새 학습장을 쓰고싶어 아직 몇장 남은 낡은 학습장을 몰래 찢어버린적이 있었다. 그것이 어머니를 그처럼 노엽게 할줄이야. 그날 밤 동무들과 술래잡기를 하다가 집에 들어서는 나의 종아리를 거두고 매를 드시며 하시던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귀전에 울리는듯 하다.

《책을 사랑할줄 모르는 애가 공부인들 제대로 하겠냐.》

그것이 서러워 쿨쩍쿨쩍 울다가 잠들어버린 내 머리말에 어머니는 밤새 책을 꿰매여 새 책처럼 만들어 놔주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 나는 다시 학습장을 찢지 않았다. 그것이 다 낡은 학습장일지라도 말이다.

그 시절에는 어머니가 학습장이 아까워서 그런다고만 생각했었지만 철이 들어서는 자기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교실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동무들을 사랑하게 되며 그것이 자라 애국심으로까지 된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으로.)

만부하로 돌아가는 기계들의 동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원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한번 의미해보았다.

지배인은 나의 속생각을 알아차린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나 같다고, 그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위해 공장의 생산을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고 하면서 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꼭 1억 5천만권에 달하는 학습장을 생산해낼것이라고 했다.

이 세상에 교육을 중시한다는 나라는 많다. 하지만 나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학용품문제가 자식을 가진 부모들의 가정사로 론의되기 전에 국가의 중대사로 토의되는 나라, 령도자의 최대관심사로 되는 나라가 있다는것을 들은적이 없다.

더 좋은 학습장, 더 많은 학습장을 생산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가슴 한가득 안겨주자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당부가 지금 민들레학습장공장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오늘은 놀라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고 한다.

여러 기회에 조국의 신문과 TV, 홈페지들을 통해 들은데 의하면 이 공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 몇해사이에 자체의 힘으로 해마다 학습장생산량을 부단히 늘여

가고있으며 종류에서나 질에서나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제품들을 꽝꽝 생산하고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습장뿐아니라 지우개와 크레용을 비롯하여 다종다양한 질좋은 학용품들도 만들어 학생들에게 공급하고있다.

지금 조국에서는 민들레마크를 단 렬차들과 자동차들이 전국의 학생들에게 보낼 민들레학습장을 가득 싣고 달리는 새 풍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있다.

민들레학습장만이 아니다.

공화국에서 명성이 자자한 《소나무》책가방이며 그리고 전국의 모든 청소년학생들이 철따라 받는 새 교복과 학용품들도 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며 자기의것을 제일로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애국의 마음을 지니도록 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웅심깊은 사랑과 뜻과 더불어 태여날수 있었다.

나는 얼마전 《우리 민족끼리》인터네트홈페지에 실린 한 편집물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질좋은 민들레학습장과 학용품을 한아름씩 안고 기뻐하는 공화국의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접하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

— 조국의 아이들은 아마 그 학용품을 쓰며 지식을 다지기 전에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과 뜨거운 정을 알게 되고 자기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키워주는 조국의 품을 알게

될것이다. 이제 저 아이들도 크면 부강한 조국을 억척같이 받드는 억센 기둥이 되리라. 그 기둥들이 모여 받들어올린 조국은 또 얼마나 강대해질것인가. ―

《왕 차》

멫해전 화창한 봄날이였다.

나는 살구꽃 만발한 어느 거리를 걷고있었다.

서너발앞으로는 빨간 리봉을 머리에 단 대여섯살 나보이는 처녀애가 엄마의 손을 잡고 귀엽게 재잘거리며 가고있었다.

자기 유치원에서 아무개랑 달리기경기를 하던중에 아무개가 넘어져서 자기가 일으켜주었다는 이야기, 또 다른 아무개가 선생님한테 시창공부를 제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 자기는 글씨를 제일 곱게 쓰고 웃사람들에게 인사를 제일 잘해서 선생님이 고와한다는 이야기 등 이야기가지수도 다종다양했다.

어찌나 꼬마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지 그애의 말을 귀동냥해 듣던 나는 어느새 동심에 빠져들었다. 또 무슨 말이 나오겠는가 하여 귀를 기울이는데 꼬마가 이번에는 무엇

에 놀란 목소리로 웨치는것이였다.

《엄마, 왕차!》

《그래, 왕차구나.》

《?!》

딸애의 말에 엄마는 빙긋 웃으며 긍정했지만 나는 잘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나라 왕이나 대통령이 탄 차는 더욱 아니고 다른 차들보다 차체가 커서 그렇게 부르는것도 아니였다. 그것은 《콩우유》라고 쓴 자그마한 랭동차였던것이다.

내가 의아해하는새 처녀애는 엄마의 손목을 잡고 나풀나풀 저만치로 날아갔고 금방 네거리에 들어선 《왕차》는 다른 차들보다 먼저 앞서 달렸다.

수수께끼같은 일이였다.

그후에도 나는 자주 《왕차》들을 거리에서 보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네거리에서였다.

우리일행이 탄 차가 네거리교차점에서 신호를 기다리고있는데 전번에 보았던 《왕차》가 또 먼저 신호를 받고 달리는것이 아닌가. 그것도 이번에는 한두대가 아니라 여러대나. 특수한 차임이 틀림없었다. 나는 그 《특수차》를 가리키며 안내원에게 물었다.

《저 콩우유차에 무슨 비밀이 있는것 같애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언제 보아도 싱글싱글 웃기 잘하는 젊은 안내원이 얼굴에 함뿍 웃음을 담고 나에게 되물었다.

《특수차이길래 저렇게 먼저 빠지지?》

《하하, 특수차임은 틀림없습니다.》

《글쎄 그럴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안내원과 차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번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었다.

안내원은 《선생님이 우리 나라에 자주 오시면서도 저 왕차의 <비밀>을 아직 모르고계셨구만요. 참, 선생님이 우리 공화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글을 쓰시는데 저 왕차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면 읽을 맛이 없을것입니다.》 하면서 나의 귀맛을 더 돋구었다.

《무슨 비밀인데요? 너무 재세하지 말구 빨리 좀 이야기해주세요.》

나의 억양은 조르는것에 더 가까웠다. 마치 어린이가 엄마에게 재미있는 옛말이야기를 해달라고 매달리듯이.

《에, 그럼 내 보물이야기주머니를 풀기 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당콩 한알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

모두가 의아해하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는 그럴수 있다는듯 한 표정을 짓더니 머리를 끄덕였다.

《콩연구사가 아니고서야 한알에 얼마만한 영양가가 있는지 누가 관심하며 단백질이 몇그람이나 들어있는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알고계셨습니다. 당콩 한알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고 그 당콩이 50알이면 닭알 1알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는것을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감동적이면서도 우리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의 이야기는 어느새 1956년으로 거슬러올랐다.

그해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고계시였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아침이면 주석님께 소금물에 삶은 당콩을 몇알씩 접시에 담아 들여오군 하였다고 한다.

주석님께서는 그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왜 아침마다 당콩을 삶아 들여오는가고 물어보지 않으셨지만 분명 당콩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때문일것이라고 생각하시였다. 하여 귀국하신 후에 해당 부문에 과업을 주어 당콩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 하는것을 분석해보도록 하시였다.

당콩을 분석해보니 당콩 50알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닭알 한알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맞먹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백질이 닭알 한알에는 6.9g 들어있는데 당콩 50알에는

6.5g 들어있다는것이였다.

특히 탄수화물함유량이 당콩 50알에는 12.2g 들어있지만 닭알 한알에는 0.5g밖에 없는것이다. 당콩에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비타민을 비롯하여 미량원소도 많이 들어있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당콩 50알과 닭알 한알의 영양소분석결과를 대비하시고 당콩 50알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닭알 한알에 들어있는 영양소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줄당콩은 우리 나라 어디서나 잘되며 넝쿨을 올리기때문에 땅도 얼마 들지 않는다고 줄당콩농사법에 대하여 세심하게 가르쳐주시였다. 그리시고는 당콩을 한해에 2만 5천t 생산하면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루는 당콩 60알씩 먹이고 하루는 닭알 한알씩 먹이는 방법으로 단백질을 떨구지 않고 먹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생산과 공급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세워주시였다고 한다.

그후에도 아이들을 위하시는 주석님의 사색은 그칠줄 몰랐다.

어느해인가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외국방문의 길에서 초원에 흐르는 젖소떼를 바라보시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유를 마음껏 먹일수 있겠는가를 구상하시였다. 주석님께서는 조국에 돌아오시여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축산조건이 제한되여있는 조국의 실정

에 맞게 콩우유를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첫 제품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송수화기를 드신채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구절을 흥에 겨워 부르시였다는 주석님.

안내원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이같이 말을 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새 세대들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여 영양학적으로 아이들에게 흡수력이 제일 좋은 시간을 공급시간으로 정해주시고 수도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콩우유를 동시에 먹을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랑의 <왕차>로 정답게 불리워지고있는 은정어린 콩우유전문수송차들이 정연하게 세워진 공급체계에 따라 수도의 거리들을 달리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으며 시내의 모든 도로들에서 콩우유차들에 대한 우선적이며 즉시적인 통행질서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콩우유를 정상공급하기 위한 사업은 하루도 중단없이 진행되였습니다.》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의 력사를 그대로 이으시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신다는것도 그의 이야기이다.

그이께서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거듭 현지지도하시였을

뿐아니라 콩우유공급에 필요한 새 운반차들을 보내주시고 몸소 운반차에 새길 글자와 그림도안까지 지도해주시며 다심한 정을 기울여주시였다고 한다.

콩우유를 생산하는 공장은 평양시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온 나라 전국각지에 수많이 일떠서있으며 한시도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하고있다고 한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입원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찾아 《왕차》가 매일매일, 계절에 관계없이 찾아간다는것이다.

안내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고 《특수차》에 대한 나의 의문은 풀릴수 있었다. 그러나 나와 동료들이 받은 감동은 순간으로 끝나지 않았다.

콩우유 한고뿌에도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하시는 위대하신분들의 사랑과 로고가 그렇게 깃들어있다니 어찌 감동이 되지 않겠는가.

그날 나는 일기장에 이에 대해 썼다. 내가 쓰는 글에 꼭 《왕차》에 대하여 쓰겠노라고 맹세도 다지며.

후날 어느 한 소학교를 참관하였을 때 그 사랑의 콩우유를 싣고 온 《왕차》를 에워싸고 좋아라 웃고 떠드는 복스럽고 튼튼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왕차》의 운전수도 만나보았다.

언제부터 《왕차》를 몰았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벌써 20여

년이 되였다고 하면서 콩우유를 가득 싣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찾아 달린 주행거리를 합치면 아마 지구둘레를 수백회 돈것과 맞먹을것이라고 자랑하는 《왕차》운전수의 긍지에 넘친 얼굴은 또 한번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세상에는 나라가 얼마나 많던가.

하지만 공화국처럼 당과 국가가 아이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의 튼튼한 성장을 위해 장수식품으로 이름난 콩으로 우유를 대량생산하여 영양학적요구에 따라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매일 공급해주는 나라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다.

나는 생각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풍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을 찾아 변함없이 달리고달리는 《왕차》,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이 낳은 공화국어린이들의 행복의 대명사라고.

존엄높은 대학

《우리 대학은 존엄높은 대학입니다.》

이것은 조국에서 주체적건축인재양성의 거점으로 불리우는 평양건축대학 건축음향학강좌 교원들의 말이다.

내가 이 말을 또다시 되새겨보게 된것은 조국에 체류하고 있던 2019년 3월 어느날 아침이였다.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원탁우에 놓인 신문과 잡지들을 훑어보며 커피를 마시던 나는 문득 눈길을 멈추었다.

《사회주의 내 조국을 과학기술성과로 더욱 빛내여갈 드높은 열정》이라는 제목아래 《새로운 건축음향설계를 완성하기까지》라는 소제목을 달고 평양건축대학 건축음향학강좌에서 이룩해낸 성과를 소개하는 기사가 실린 어느 신문을 보게 되였던것이다.

건축음향학강좌의 교원들이 조국에 흔한 흡음특성이 좋은 건식건재를 제작하고 음향효과와 조형성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건축음향설계를 완성하고 여러 단위에 도입하는 성과를 거둔데 대한 자료였다.

정말 반가웠다. 그럴것이 건축음향학강좌라면 나와 면식이 있기때문이였다.

내가 그들을 만나게 된것이 그때로부터 3년전인가 사업상 어느 한 나라에 체류하고있을 때였다.

그때 그 나라의 권위있는 건축음향학자가 다름아닌 막역지우의 사촌이였는데 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집에 잠간 들리게 되였다.

그런데 거기서 조국에서 온 평양건축대학의 교수들과 자리를 마주하게 될줄이야.

그들과 우연하게 함께 한 저녁시간은 조국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해준 참으로 잊을수 없는 시간이였다.

가장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

건축음향학강좌에서 강좌장으로 사업하고있다는 녀교수이다. 대학에서 30여년째 교편을 잡고있다고 하는 그는 두 딸의 어머니이며 공화국의 건축음향학계의 권위있는 교수, 박사, 공훈과학자이라고 그와 함께 온 다른 교수가 소개했다.

나이는 62살, 하얀 귀밑머리가 그의 나이를 말해주고있었지만 온몸에는 정열이 차넘치고있었다.

그들과 마주앉고보니 건축대학에 대하여 자상히 알고싶어졌다.

문득 나는 언제인가 조국에서 릉라인민유원지를 참관하였

을 때 특색있는 여러 건물들에 대한 설계를 20대의 건축대학 학생들이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그래서 그에게 그때 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에 새로 일떠서는 많은 건축물들가운데 건축대학 학생들이 하는 설계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대학의 교육수준이 정말 높은것 같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녀교수는 호기심어린 나의 말에 사의를 표하면서 정말 옳게 보았다고, 큰 비결이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우리 대학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명예총장으로 모신 존엄높은 대학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 영광을 가슴에 안고 살고있으며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만을 드릴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사색하며 탐구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왜 훌륭한 설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을 명예총장으로?

그는 놀라워하는 우리에게 대학을 찾으신 뜻깊은 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마다 이 대학사업을 중시하여오신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오늘은 자신께서 평양건축종합대학의 명예총장이 되여 대학사업을 적극 밀어주려고 한다고 하시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력사의 그날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2013년 어느날 대학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번에 교육부문의 어느 단위를 돌아볼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하다가 평양건축종합대학을 돌아보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 대학에 나왔다고, 그것은 평양건축종합대학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이름할수 없는 감동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는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한몫할수 있는 유능한 건축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평양건축종합대학은 주체적건축인재양성의 거점이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초기지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는것이다.

주체적건축인재양성의 거점!

그날 그들은 그이께서 평양건축대학을 얼마나 중시하시고있으며 그 믿음과 기대도 얼마나 크신가를 심장으로 새겨안았다고 한다. 오랜 시간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대학이 문명국건설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대학일군들과 교원들은 사회의 발전면모와 현대의 모든 지성, 창조적사색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건축의 세계가 얼마나 심오하며 그 첨단에 올라서자면 어떤 높은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더욱 잘 알게 되였다.

대학의 교육조건을 잘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건축인재양성에서 밑거름이 되려고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격정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들.

그이께서는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 지금 전국각지에서 전도유망한 건축가들을 기다리고있다. 학생들에게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도가 달려있고 이 학생들의 손에 의하여 사회주의문명국의 설계도가 그려지게 된다. 평양건축종합대학 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의 설계도를 자기들이 그려야 한다는 자각과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겠다는 야심만만한 포부와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그날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니 대학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의 기세는 충천해졌고 정열이 용솟음치게 되였다.

몇년어간에 2만여건의 전자교수안이 작성되고 수십개 학과목이 개척되였으며 수백건의 우월한 교육방법이 창조되고 1 000여건의 과학연구과제가 원만히 수행되였던것이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450여개 과목이 전자화된 교수안으로 작성되고 많은 전공 및 전공기초과목의 교육내용이 개선되였으며 400여종의 교과서, 참고서들이 집필, 출판되였다는것도 그의 이야기이다.

최근에는 건축물의 5차원설계체계에 대한 기초적연구와 BIM에 기초한 설계예산편성방법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고 시공공정모의프로그람들도 새롭게 개발하여 그 성과를 교육사업에 적극 구현하였다고 한다.

자랑은 그뿐이 아니였다.

교육의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여 대학을 건축부문의 학술중심, 정보중심, 자료봉사중심, 원격교육중심으로 꾸리는 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한다. 하여 건설부문 대학들에 대한 교육학적 및 학술적지도와 원격학술토론회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며 백수십만건의 자료들이 구축되여 많은 단위들에 건축과학기술을 널리 보급하고있다는 등 그의 자랑은 끝이 없었다.

《원격교육대학에서는 건축학과를 비롯한 10여개의 학과에 5 000여명의 원격강의를 보장하고 실시간질의응답체계를 리용하여 현직설계원들에 대한 원격교육도 실현하고있습니다. 그뿐아니라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여 대학의 모든 교실들의 다기능화를 실현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을 혁신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한 결과 교육의 질적수준이 비약하여 대학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은 려명거리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조명과 난방문제를 태양빛전지와 지열, 자연채광으로 해결하며 건물옥상들에 온실을

설치하고 지붕록화를 할수 있도록 기술설계를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와 령에네르기, 령탄소, 록색건축기술 등 최신건축기술들이 반영된 수많은 설계작성을 맡아하였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명예총장으로 모시여 건축대학은 조국의 문명국가건설을 선도해나가는것이다.

녀교수의 목소리가 귀전을 다시 울린다.

《우리 대학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명예총장으로 모신 존엄높은 대학입니다.》

교육자들의 집

2014년 10월 어느날.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새집들이를 하는 날 나는 조국방문단 성원들과 어울려 이곳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그 건설을 발기하시고 설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지도해주시고 흙먼지날리는 건설현장에

까지 몸소 나오시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였다.

완공의 그날에는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대동강에 떠있는 돛배갈다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이 반영된 건축물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는 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당의 의도에 맞게 완공된것만큼 새집들이를 빨리 하라고, 교원, 연구사들에게 새 집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가정방문을 하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였다는 살림집이였다.

조국에서 교육자들에 대한 우대가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알수 있었다.

초고층의 쌍기둥을 이루며 하늘로 높이 솟구쳐오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도착하니 새집들이를 축하하는 교원가족들과 학생들의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새집들이풍경에 사로잡혀 걸음을 옮기던 나와 일행은 이사짐을 든 사람들과 맞다들었다. 알고보니 김책공업종업대학 기계과학기술대학 류체력학강좌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교수, 박사 문학춘교원과 그의 가족이였다. 문학춘교원으로 말하면 오래동안 교원으로 있으면서 후대교육사업과

대동강맥주공장현대화를 비롯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있는 교원이라고 한다. 그의 두 아들과 며느리들도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이였다. 대를 이어 과학기술로 조국을 받드는 가족이라 해야겠다.

우리가 1현관 10층 1호에 자리잡은 그의 집에 들어섰을 때였다. 경탄의 목소리가 절로 나왔다.

나도 그만하면 크고 좋은 집을 쓰고사는편이지만 집세가 여간 만만치 않다. 그런데 대학교원이 공동살림방, 부모방, 자식방, 서재, 부부방이 있고 부엌, 창고, 복도까지 있어 어느 방부터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와야 할지 모를 정도로 큰 그 집을 무상으로 쓰고산다니 왜 놀라지 않았겠는가.

방안을 다 돌아본 문학춘교원은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새 집이 멋있을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의 가구, 하나의 살림방에도 교육자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이 뜨겁게 슴배여있습니다. 어제는 별로 해놓은 일도 없는 나를 국가적인 대회장에 불러주시고 오늘은 또다시 궁궐같은 새 집을 통채로 안겨주시니 원수님의 그 은정에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며 격정을 터치였다.

그의 안해도 눈굽을 적시며 어쩌면 우리 가정주부들의 심정을 이렇게까지 잘 알고계시는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은 이 세상 어머니들의 사랑을 통채로 합쳐도 비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대로 부엌에는 녀성들에게 편리한 부엌세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었다.

《세상을 둘러봐도 우리 조선의 교원들처럼 복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에는 보답이 따르기마련입니다.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문학춘교원의 말이였다.

덩실한 새 집이 너무 좋아 이방저방 좁다하게 뛰노는 아이들을 달래는 그의 며느리도 고마움에 겨워 자식들을 미래의 훌륭한 교육자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나서며 우리는 새 집들이로 흥성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다시금 볼수 있었다.

그로부터 몇년후인 2019년 3월 나는 룡흥네거리에 쌍벽을 이루고 서있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니 종소리에 뒤이어 출입문이 열리며 집주인이 우리를 반겨맞았다. 집주인은 외국어문학부 강좌장으로 사업하고있는 리혁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를 따라 방에 들어서니 벽면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준공식날 살림집에 입사하게 될 교원, 연구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찍으신 기념사진이 모셔져있었다.

그앞에 걸음을 멈추었는데 아직도 그날의 감격을 잊을수 없는듯 강좌장은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원, 연구사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돌봐주는것은 조국의 미래와 관련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고 생활상편의를 보장해주어야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후대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전심할수 있다고 하시였다고.

여러칸의 방이며 부엌, 세면장, 식사칸 등을 돌아볼수록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위해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심깊은 사랑이 느껴졌다.

책상앞의 벽에 설치한 자그마한 책장에도 교원, 연구사들이 집에 들어와 학습과 교수준비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책상을 놓은 서재벽면에 당반식책장을 설치해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은정이 어려있고 가정주부들에게 편리하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부엌에도 그리고 찬장안에서 반짝이는 그릇들에도 그분의 따사로운 사랑이 깃들어있다고 집주인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세상에 우리 교육자들처럼 령도자의 극진한 사랑속에 사는 교육자들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평범한 교원, 연구사에 불과한 저희들이 이렇게 궁궐같은 새 집을 받아안을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본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그것은 조국의 교육자들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혜택이였고 그들만이 가질수 있는 삶의 보금자리였다.

선두마차, 기관차가 되라

2019년 3월 10일 공화국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였다.

조국에 체류하는 여러 기회에 걸쳐 선거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깨달은바지만 그날도 나는 정권의 주인인 조국인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얼마나 당당하게 행사하고있는가를 다시금 느낄수 있었다. 돈에 의해 사람들의 지위가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고있다면 누구나 각급 주권기관 대의원으로 될수 있는 조국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명절분위기에 휩싸여있는 선거장과 선거자들의 성실한 태도로 조국인민들은 또 한번 자기 주권에 대한 자신들의 신뢰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었다.

이 나라의 어느 일터에서나 볼수 있는 소박한 근로자들이 자기자신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선거하고 명절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본 이방인들은 대번에 조선의 《인권문제》를 떠들어대는 서방의 선전이 완전히 거짓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나는 또다시 확신했다.

《공화국의 선거제도는 진정한 인민의 주권을 비쳐주는 맑은 거울이다.》라고.

이날 내가 새롭게 확신한것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날 나는 TV로 선거에 참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모습을 뵈옵게 되였다.

그분께서 투표하신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는가. 누구나 쉽게 궁금증을 느끼리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이겠는가, 경제인이겠는가, 군인이겠는가, 농민이겠는가.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선거장에 나오시여 투표하시고 만나주신 대의원은 다름아닌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이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나와 많이 친숙해진 대학이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또 실지 여러번 참관한적이 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8년에도 창립 70돐을 맞이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으시였다.

이 대학에 대하여 앞서 많이 이야기하였지만 평양의 중심구역에 위치하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과 함께 공화국에서 손꼽히는 종합대학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조선의 첫 종합적과학기술인재양성기지이다.

대학의 이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가장 가까운 동지였던 전 내각부수상이며 산업상이였던 김책의 이름을 따서 지은것이다.

창립당시 불과 몇개의 학부와 수십명의 교원들이 전부였던 대학은 지금 여러개의 대학들과 수십개의 학부, 연구소들, 수천명의 교원, 연구사력량을 가진 과학기술핵심골간을 키워내는 원종장, 나라의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으로 장성강화되였다.

대학의 창립과 강화발전에는 절세위인들의 업적이 걸음걸음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대학창립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1948년 9월 평양공업대학(전신)을 세워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교원, 연구사들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중단없이 할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으며 그후 대학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50년대말 대학에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이곳에 여러차례 나오시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2006년 새해 정초에도 완공된 전자도서관과 체육관을 돌아보시면서 대학이 정보산업혁명의 개척자답게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에서 더 높이 도약할데 대한 믿음을 주시였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속에서 지난 70년간 100여명의 공화국영웅, 로력영웅들과 수많은 인민과학자, 공훈과학자, 학위학직소유자들이 배출되였다고 한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학을 찾으신 그때로부터 얼마 안 있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이 대학을 찾으신것이다.

한 나라 령도자가 내짚는 한걸음한걸음에는 참으로 많은 뜻과 의미가 실린다.

다름아닌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꾸려진 선거장에 나오시여 대의원후보자인 대학총장에게 투표하신것은 과학교육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부문의 발전을 도모하시려는 의도가

있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럴것이 대의원후보자인 홍서헌총장과 담화를 나누시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대학이 과학교육사업과 경제의 활성화,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제일 믿고있는 맏아들, 나라의 과학교육과 경제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 바란다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고 신문과 방송은 전했다.

그뿐아니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대학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대학의 교육사업과 과학설비, 정보기술의 현대화를 위해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선두마차, 기관차.

그이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세계는 과학기술과 교육발전을 토대로 하여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시려는 그분의 의지를 잘 알게 되였을것이다.

이 대학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얼마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저 한다.

공화국의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되였다는 어느

한 공장을 돌아볼 때의 일이다.

어느해인가 이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통합생산관리체계가 규모에 있어서나 지능화, 정보화수준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최고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국가적인 범위에서 생산공정의 자동화,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큰 몫을 맡아 해제끼고있다고, 생산공정의 자동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단위들에 가서 물어보면 모두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도와주었다고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눈으로 볼수 없는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로정들을 밟으면서 나는 자기의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조국을 가꾸어가는 이 대학의 교육자, 기술자들의 마음과 마음을 똑똑히 보았다.

떠오르는 모습이 있다.

몇해전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참관하였을 때 우리를 안내하던 그 대학의 한 남성교육자의 얼굴이다.

그는 《우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서 단단히 한몫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기술대국이라 자처하는 불과 몇개 나라의 독점물처럼 되여있던 공정들, 제노라 하는 나라

에서도 남의것을 거의나 통채로 옮겨다놓은데 불과한 공정들은 물론 본적도 들은적도 없었던 기계설비들이 이 대학의 졸업생들에 의하여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되고있다고 한다.

그는 제자들이 안아오는 성과의 비결에 대하여 이렇게 밝혔다.

― 예로부터 금이야 옥이야 하는 말은 어린 자식들이 듣는 말이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말을 우리 교육자들이 듣는다. 우리처럼 령도자의 천만로고와 눈물겨운 헌신으로 엮어진 《금방석》에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는 과학자들은 행성의 어느 하늘아래도 없다고 본다.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거두는 성과의 비결은 이때문이다. ―

순간 나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펼쳐지는것이 있었다.

과학자, 교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하늘길에서도 보시고 아스라한 만장에까지 오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셨다는 황홀한 과학자, 교육자살림집들.

나는 그것을 인재중시의 기념탑들이라고 말하고싶다.

어디 그뿐인가.

얼마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한 로교수가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직승기까지 띄워주시고 그의 소생을 위해 온갖 은정어린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 소식으로 교육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가 감격에 눈굽을

적시기도 하였다.

진정 한 나라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고마우신 어버이의 사랑을 자양분으로 하여 자란 공화국의 과학자들이기에 진주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자기의 령도자께, 조국에 아낌없이 바치는것이리라.

선두마차, 기관차가 되라!

선거장에서 나오시며 대학안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환호를 받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나는 다시한번 이 말을 되새겼다.

나는 믿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이면 하늘의 별도 따올 저들이 점령 못할 첨단이란 없을것이라는것을.

2. 내가 본 교육현장

대다수의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사업도 말로나 듣고 책으로나 보아서는 그 진면모를 다 알수 없다는것이 나의 지론이다.

때문에 나는 교육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과 교육사업을 잘한다고 소문난 곳들이라면 애써 찾아가 두루 돌아보면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군 하였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조국땅을 수십차례에 걸쳐 방문하면서 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육사업이였고 그래서 유치원과 소학교로부터 초, 고급중학교들과 대학들 지어 원격대학현장들도 많이 돌아보게 되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생각밖이였고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감동과 경탄의 련속이였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 많은 대상들에 대한 참관과정과 느낀바를 여기에 일일이 다 적을수는 없고 내가 참관과정에 가장 큰 감명을 받았던 교육현장들에 대한 몇가지 이야기만을 여기에 옮기려고 한다.

신동들이 자란다

몇해전 나는 조국을 다녀온 동료와 마주앉았다. 서방의 모략적이고 날조된 선전을 그대로 믿고 억측과 몰리해 지어 일종의 두려움을 안고 갔다가 지구촌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신기한 세계를 발견하고 비로소 인식을 새롭게 했다며 친구는 흥분에 떠있었다.

그날 친구는 시간가는줄 모르고 참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중에서도 조국에서 학령전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상당히 발전되였다는것, 어린이들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주는 사회주의교육제도가 부러웠다는 진심어린 말은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받은 감동은 그후 조국방문의 나날 나자신이 체험한것이기도 했다.

경상유치원을 참관하였을 때 받은 감동이 다시금 되새겨졌다.

지난해 9월 조국을 방문하였던 나는 뛰여난 예술적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수많이 키워내는 조기음악교육기지로 소문난 경상유치원에 한번 꼭 가보고싶던 소원을 풀수 있었다.

평양의 중심부에 서방세계에서 《곡선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평하였던 현대적인 창전거리가 있다. 조국방문기간 창전거리를 지나다니면서 타원형과 원형의 다양한 형태의 곡선미로 현대적인 건축미를 한껏 살린것이 퍽 인상적이였는데 바로 이 거리에 경상유치원이 자리잡고있었다.

두팔을 활짝 펴고 따뜻이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을 련상케 하는 경상유치원앞 정문에서 현숙해보이는 녀성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리강죽이라고 자기 이름을 소개한 원장은 폭신폭신한 고무깔판을 깐 넓다란 운동장에서 갖가지 유희기재를 리용하며 좋아라 뛰노는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원래 이 자리에 경상유치원이 있었는데 2012년에 창전거리가 새로 일떠설 때 개건하였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꾸려진 우리 유치원을 남먼저 찾아주시고 멋쟁이유희기재들과 함께 손풍금, 입풍금, 기타와 같은 악기들과 현대적인 음향설비들을 보내주시여 어린이들이 재능의 나래를 활짝 꽃피우도록 해주시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절세위인들의 영상이 모셔진 1층 중앙홀에 들어서니 아롱다롱 무지개빛을 발산하는 보석을 깐 바닥이며 현란한 무리등들로

하여 마치 황홀한 별나라에 온듯 한 심정에 휩싸였다. 문득 평양산원을 참관하면서 후대들을 낳아 키우는 녀성들을 위해 국가에서 특별히 관심하여 산원의 중앙홀바닥에 깔아준 보석을 보고 감동을 금할수 없었던 그때의 심경이 되살아났다.

보석이라고 하면 자본주의세계에서 권세와 치부, 사치와 허영을 뽐내는 돈많은 부자들이나 특권층들의 점유물로, 탐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인생의 첫출발을 뗀 아기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진귀한 보석주단을 아낌없이 펼쳐주고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원장선생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 방, 교실, 전과실과 률동홀, 잠방, 식사실, 물놀이장을 비롯하여 모든것이 어린이들의 교육교양과 동심에 맞게 특색있게 꾸려진 유치원을 돌아볼수록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았어도 이곳 유치원처럼 어린이들을 위해 국가가 막대한 투자를 한 유치원은 보지 못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뛰여난 예술적재능을 가진 음악신동들을 많이 키워내고있습니다.》

리강죽원장은 뛰여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유치원때부터 수재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어버이장군님께서 1979년 5월 경상유치원에 음

악반을 내오도록 하시고 재능있는 음악가후비들을 많이 키울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국가가 참으로 많은 품을 들이고있었다.

이곳 유치원에서 재능있는 어린이 한명을 위해 생활을 돌봐주는 교양원, 청음을 가르치는 교양원, 실기를 배워주는 교양원들이 따라붙고 그들의 성격과 취미, 감정정서에 맞는 개인교수안을 짜서 품들여 교육하고있다는 원장선생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놀라와 되물었다.

《그러니 1:3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작은 꼬마들이 교양원만 해도 3명씩이나 두고있는걸 보면 신동들을 키우기 위해 나라에서 품을 많이 들이고있다는것이 알립니다.》

경상유치원의 어린이들은 모두 평범한 로동자, 사무원들의 자녀들이였다.

국민소득이 높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뛰여난 예술적소질을 가진 어린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기란 조련치 않다. 막대한 개인적지출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뛰여난 음악적소질을 가진 어린이들을 많은 품을 들여 세계적명성을 떨치는 음악신동들로 키워내고있으니 아무리 좋은 씨앗도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 알찬 열매로 주렁질수 있다는 말을 실감했다.

경상유치원에는 지난 시기 많은 국제경연무대들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이곳 유치원의 어린이들과 졸업생들의 이름과 사진이 두 벽면을 꽉 채우다싶이 하고있었다. 거기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네트상에서 보아오던 경상유치원 음악신동들의 낯익은 모습들을 찾아볼수 있었다.

2012년 12월에 진행된 제20차 쑈빵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1등상과 특별상을 받은데 이어 제9차 라흐마니노브명칭국제피아노콩클에서 1등, 제10차 국제청소년음악가콩클 피아노부류에서 1등을 한 피아노신동 마신아어린이도 있었고 제56차 슈만국제청소년피아노콩클에서 1등상과 특별상을 받은 유별미어린이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제20차 쑈빵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1등과 특별상을 받은 최장흥, 리유정어린이들과 6살 나이에 제24차 쑈빵국제청소년피아노경연에서 만사람의 절찬을 받은 한수려어린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9차 국제축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공연》의 주인공들로 이목을 끈 기타4중주단 어린이들도 있었다.

…

경상유치원을 졸업한 음악신동들가운데 국제콩클수상자, 국내의 이름있는 예술단체들에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훈배우, 인민배우, 실력있는 창작가, 연주가, 교원들도 많다며 원장선생은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유치원의 자랑스러운 오늘과 래일이 있겠습니까.》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어린이들을 더 훌륭히 키우시려고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한해에 두차례나 이곳 유치원을 찾으시여 친어버이의 다심한 정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원장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젖어들었다.

원장선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치원에 지능계발용그림수수께끼책을 비롯한 여러가지 아동도서들을 몸소 가지고 오시여 자신께서 경상유치원에 다시 찾아온것은 학령전어린이들의 지능계발이 중요하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특출한 음악인재들을 많이 키울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곳 유치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은 원수님의 믿음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어린이들에 대한 지능교육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는 교수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꾸준한 사색과 탐구를 이어가는 과정에 교육교양사업에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자랑할만 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고 한다.

지능교육수준을 개선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어린이교육

지원프로그람개발사업이 그 대표적실례라고 한다.

온 나라에 교육혁명을 일으켜나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학령전어린이들의 지능계발에서 혁신을 가져오자면 종전의 구태의연한 교육교양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한 착상이였다.

유치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은 전문연구사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어린이들이 알고싶어하는 동물들이 실지 살아움직일뿐아니라 그 개별적특징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할수 있는 어린이교육지원프로그람 《신비경》(동물편)을 개발완성하였다.

범이 움직이면서 울음소리를 내고 걷거나 뛰는 모양, 공작새가 고운 날개를 펴는 동작, 성성이가 가슴두드리는 특징적인 모습 등 100여종의 동물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는 《신비경》은 교육교양사업에 도입되여 어린이들이 사물현상을 관찰하고 대비분석하는 능력을 훨씬 높여주고있다고 한다.

유치원에서는 식물, 사물, 자연현상으로부터 도덕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교재에 있는 모든 그림들을 움직임속에 생동하게 보여주기 위한 개발사업도 꾸준히 벌리고있다고 원장선생은 설명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유치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모두가 음악전공실력뿐아니라 전반적인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활발

히 벌리고있고 전국의 유치원 음악반들의 교수준비와 교수활동을 일원화, 규범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고 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유치원이 안팎으로 멋쟁이인데다가 교육수준도 높으니 이런 곳에서 뛰여난 재능을 가진 신동들이 수많이 자라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귀결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가지게 되였다.

이런 심정은 나뿐이 아닌 유치원을 참관한 많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감상록에 남긴 아래의 반영들이 그것을 실증해주었다.

《나는 위대하시고 현명하시고 다심하신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경상유치원의 모든 어린이들이 앞날의 조선의 훌륭한 미래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경상유치원 어린이들의 공연을 보고 형언할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진짜 배우같습니다!》

《이 유치원을 졸업한 어린이들이 유명한 음악가가 되여 전세계에 조선의 영예를 빛내이기를 바랍니다.》 …

나라의 창창한 미래로 자라나는 경상유치원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나는 이 땅의 모든 아들딸들의 밝은 앞날을 확신할수 있었다.

이런 뛰여난 신동, 인재들은 조국의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다.

조국방문의 나날 나는 신문과 TV를 통해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공연과 전국소묘축전들에서 여러번 특등을 하였다는 나어린 소학교 학생의 그림솜씨와 전국어린이바둑경기에서 패권을 쥔 꼬마바둑신동들의 경기장면,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꿈을 안고 축구기술을 열심히 배워가는 나어린 축구인재들의 대견한 모습도 볼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천성과 재능의 싹을 찾아내고 적극 계발시켜주는 국가적인 관심과 정규적인 교육체계, 훌륭한 교육자들이 있어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는 신동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돈 한푼 안 들이고 꿈과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는 어린이들, 이런 뛰여난 신동, 인재들이 자라나 가꾸고 빛내갈 조국의 미래는 참으로 아름답고 환희로울것이다.

내가 알게 된 세쌍둥이

몇해전 어느 한 나라의 소학교앞에서 한 남성이 칼을 휘둘러 학생 2명이 즉사하고 다른 학생 1명과 학부모 1명이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행인들에 의해 제압된 살인범은 29살의 청년실업자였다. 청년은 학비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 일자리를 구하러 여기저기 찾아다녔다고 한다. 결국 계속되는 구직난과 생활고로 사회에 앙심을 품은 범인은 10살밖에 안되는 무고한 아이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그 나라의 학부모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다.

직업도 돈도 없는 불행한 청년에 의해 뜻밖의 불행을 당한 아이들이였다.

무엇때문인가, 누구때문인가.

내가 이런 생각을 곰곰히 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

2018년 가을, 조국에서 대표적인 수재양성기지로 손꼽히는 금성제1중학교를 찾았을 때였다.

우리일행을 마중한 교장의 안내를 받으며 교사안에 들어서

니 복도의 벽마다에 게시되여있는 직관물들이 눈길을 끌었다. 수학, 물리, 영어, 화학, 생물을 비롯하여 교재내용에 해당한 공식들과 법칙들, 상식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품들여 만든 직관물들로 하여 교사의 모든 벽과 홀들이 지식홀, 상식홀을 이루고있었다.

내가 깊은 인상을 받은것은 과목별로 전자칠판, 밀개식칠판 등 각이한 칠판을 다양하게 리용하는것이였다.

소학반 학생들의 교실에도 들어가보았다. 보조탁이 달린 이동식교탁과 학생들의 키에 맞게 높이를 조절할수 있게 만들어진 이동식책걸상, 학용품보관장, 교편물장, 청소도구장 등 모든것이 손색없이 꾸려져있었다.

어느 교실에 들려보아도 다기능화, 정보화가 상당한 수준에서 실현되여있었고 어느 강좌실을 돌아보아도 교육의 질적수준을 담보하는 모든 조건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었다.

교실로부터 복도와 홀들을 비롯하여 학교의 모든 공간이 학생들의 학습에 실지로 도움이 될수 있게 잘 꾸려져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땅겉면온도와 바람속도, 바람방향, 대기온습도 등을 측정하고 그것을 콤퓨터로 전송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리용할수 있게 되여있는 지리학습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우는 70여종의 나무들이 빈 공간없이 꽉 들어찬 교재원과 여러 공식들과

외국어단어들을 익힐수 있게 꾸려진 야외학습터, 교사와 다를바없이 지식홀, 상식홀이 꾸려져있는 밝고 아담한 기숙사…

조국의 발전하는 교육현실을 잘 보여주는 곳이였다.

우리일행중 길림에서 살고있는 동포가 교장에게 물었다.

《조국에 이런 수재교육을 주는 학교들이 얼마나 됩니까?》

《1984년 수재양성을 위한 평양제1중학교(당시 평양제1고등중학교)가 개교한 이후 각 도들에 제1중학교들이 설립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대학들에도 수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체계가 세워져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선발됩니까?》

교장은 이 물음에 좀더 무게있는 어조와 자세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라의 곳곳에서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수재형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한동안 간격을 두었던 교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공화국의 수재교육체계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구상에 의하여 마련된 인민적교육시책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재교육체계는 뛰여난 재능을 가진 새 세대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누구나 차별없이 키우며 교육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데 그 인민적성격이 있습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민적인 교육시책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럽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의 눈앞에는 어여쁘장하게 생긴 귀여운 3명의 처녀애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굴도 몸매도 나이도 꼭같은 금성제1중학교의 세쌍둥이들이였다.

내가 그들을 알게 된것은 몇년전 TV화면에서였다.

그날 저녁 TV로는 학생소년들의 예술공연이 방영되였다.

공연제목은 잘 떠오르지 않지만 지금도 감탄하게 되는것은 아이들의 공연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수준이였다는것이다.

아직 유치원생티를 벗지 못한 소학교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매 개인들의 기량은 높았다.

즐겁게 TV를 시청하던 나의 눈에 산뜻한 교복차림을 한 세명의 처녀애들이 안겨왔다.

척 보기에는 머리모양이나 얼굴형이 같았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아뿔싸, 정말 세쌍둥이가 아닌가.

화려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차려입은 복스러운 얼굴의 방송원은 쌍둥이들에게 물었다.

방송원: 《이렇게 우리의 무대로 세쌍둥이들이 나와 섰는데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요?》

세쌍둥이 1: 《우리들은 금성제1중학교 4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세쌍둥이들입니다.》

방송원: 《이렇게 세쌍둥이가 다같이 무대에 나와서 노래 부르게 되여서 정말 기쁘겠어요.》

세쌍둥이 2: 《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방송원: 《부모님들이 얼마나 대견해하시겠나요.》

세쌍둥이 3: 《아마 우리 어머니는 지금 또 우실겁니다.》

방송원: 《우신다구요?》

《?!》

나도 TV속의 방송원도 깜짝 놀랐다.

방송원의 놀라움이 리해된다는듯 얼굴이 발기우리하게 상기된 처녀애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평범한 군관의 안해입니다. 온 나라의 보살핌과 관심속에 우리 세쌍둥이를 낳게 된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나라에서 우리 세쌍둥이들에게 보내준 사랑의 금반지를 받아안고서는 너무나도 고마워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우리를 다 키워주고 우리 세쌍둥이들에게 불편이 있을세라 이전보다 더 좋은 네칸짜리 덩실한 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고마움에 목이 꽉 메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공부하러 오던 날 어머니는 우리들을 품에 꼭 안고 이렇게 고마운

당의 은덕에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훌륭한 무대에서 노래부르는것을 보시면 어머니는 너무 기뻐 또 우실겁니다.》

나는 머리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속담에 《무자식이 상팔자》,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 잦을새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자식 한명을 키우는데도 참으로 많은 품이 든다.

나는 슬하에 무남독녀 외딸을 두고있지만 그애가 나서부터 다 자라도록 정말 많은 고생과 품을 들여왔다.

자식 하나 키우자 해도 그렇게 힘든데 한날한시에 세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의 수고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육아는 곧 돈이다.

그래서 내가 살고있는 주변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한 녀성의 경우 다태아가 인정되면 태아상태에서 한명을 지우는 수술을 받고있다. 그 수술을 받는데도 너무나 많은 돈이 든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나는 조국에서 세쌍둥이들이 어떻게 태여나 자라고있는지 잘 알고있다.

내가 알고있는데 의하면 삼태임신으로 의문시되는 녀성들

은 해당 치료예방기관 의료일군들과의 련계밑에 평양산원에서 검진을 받는다. 삼태임신으로 진단된 녀성들은 즉시 평양산원에 입원하여 건강관리를 보장받는다.

세쌍둥이들은 육아원에서 담당의사와 담당간호원의 직접적인 보호속에 자라게 된다. 그들의 어머니에게도 전문과 의사를 고정담당시키는 건강보호체계를 세워놓는다.

세쌍둥이들은 4살이 될 때까지 국가적인 부담으로 육아원에서 키워주며 소학교에 갈 때까지 생활조건을 보장받는다.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것은 어머니라지만 그 어머니와 태여날 자식을 모두 안아 보살펴주는 국가의 배려를 그 어디에 비길수 있겠는가.

우리 조국은 겉보기엔 아직 발전된 다른 나라들보다는 번쩍거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안에는 그 누구도 따를수도, 모방할수도 없는 공화국특유의 재부와 자랑이 있다. 그것은 후대사랑의 국가적시책이라고 본다.

나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하는가고 묻는 교장의 말소리에 생각에서 깨였다.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행복한 어머니들에 대하여 생각하던 참입니다.》

한여름의 바람결이 학교정문을 나서는 나의 귀밑머리를 흩날렸다.

무엇때문인가, 누구때문인가.

나는 10대의 소년들을 칼로 무참히 죽인 청년살인범에 대한 기사를 다시한번 상기했다.

청년이 그렇게 되돌릴수 없는 범죄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한것은 과연 누구인가.

대답은 명백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절대적으로 자식의 미래를 책임질수는 없으며 옳바르게 성장시킬수 없다.

온 나라 아이들을 모두 한품에 안아 골고루 보살피며 옳바른 후대사랑의 시책속에 그들을 교육교양하는 국가만이 그들의 미래를 꽃피울수도, 책임질수도 있는것이다.

나는 그 누군가의 말을 상기했다.

《진실한 사랑없는 고대광실은 무덤과 같다.》

평양교원대학

지금도 때때로 어린시절을 추억할 때면 선생님이 들려주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르군 한다.

한 바그다드상인이 깊은 밤에 홀몸으로 황량한 산길을 걸어가고있었다.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그에게 《발밑에서 돌멩이를 주어가지고 가라구. 래일 그대는 기뻐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할거요.》라고 하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인은 그 권고대로 돌멩이 몇개를 주어 호주머니에 넣고 계속 가던 길을 다그쳤다. 이튿날 호기심을 참지 못해 날이 밝자마자 돌을 하나 꺼내 들여다보던 그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본적이 없는 희한한 보석이였던것이다. 호주머니의것을 몽땅 꺼내보니 어느 하나 보석이 아닌것이 없었다. 상인은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인차 그때 너무 적게 주어온것이 후회되였다.

선생은 계속하여 이야기했다.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은 바로 그런 보석과도 같은것이여서 어른이 된 후에는 언제나 너무 적게 배운것을 후회하게 된답니다. 학생들도 바그다드의 상인이 되지 말고 제때에 지식을 가득가득 채워나가야 합니다.》

선생의 이 말은 어린 나의 뇌리를 꽉 채웠고 일생 지침이 되여 나를 각성시켰다.

대학을 졸업하던 날 나는 어린시절의 담임선생을 찾아가 즐겁게 그때 일을 회억했다.

머리에 백발을 얹은 녀선생은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사실 그 말은 나의 말이 아니였단다.》

《후에 저도 알게 되였습니다, 선생님. 로씨야과학자이며 노벨수상자인 빠블로브선생의 말이라는것을. 하지만 선생님이 그때에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피타게 공부하지 못했을것입니다. 선생님이 제때에 그 말씀을 해주시였기때문에 제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거둔 성과들은 모두 그 선생이 제때에 학습열의를 가지도록 이끌어주었기때문이라고 생각하군 한다.

그렇게 소학교시기는 아이들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수 있으며 교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백지우에 글을 써나가듯 아이들의 머리속에 차곡차곡 쌓이며 그것

은 나아가서 일생 도움이 되는것이다.

몇해전 어느 나라에서는 대학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학교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어린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주입식교육, 부모의 과욕으로 인한 공부강요가 자립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있다는 문제때문이였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밥을 떠먹여주는 식의 교육으로 자발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며 다만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요령만 익혀 교육시켜왔다는 의견이였다.

그런 결과 자립성과 적극성이 마비되여 수업중 모르는것이 있어도 일어서서 질문을 하지 못하고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어릴적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본다.

지금은 어디서나 인재를 찾고 어디 가나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다. 인재를 찾아내고 인재를 키우며 인재를 아끼고 인재를 내세우고 인재에 의거하여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이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공동의 념원으로 되고있다.

사실 이름난 창작가들이나 성공한 과학자들, 세계가 잊지 못하는 발명가들을 보면 대체로 훌륭한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그들같이 천성적인 재간을 가지고 태여난 인

재들을 얻는다는것은 힘든 일이다.

따라서 시대적요구는 이러한 인재들의 전면적인 양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인재에 대한 교육은 어릴적부터 시작되며 그들을 키우는 사람이 바로 교원이다.

사람은 지적두뇌가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인 어린시절에 어떤 교원을 만나 어떻게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 현실을 보고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달라진다. 기초가 든든하면 어떤 건물도 다 세울수 있는것처럼 기초학력이 튼튼하면 앞으로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든 두려울것이 없게 된다. 이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 교육자양성의 원종장인 교원대학들을 잘 꾸리고 교원들의 실력을 높이는 문제의 중요성이 나오게 된다.

교원대학의 수준은 곧 매개 교육자의 수준이고 교육자의 수준은 매개 학생의 수준으로 되며 학생의 수준은 나아가서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2018년 4월에 찾은 평양교원대학에 대한 참관은 나에게 있어서 의미있는 걸음이였다.

조선로동당의 교육중시사상에 떠받들려 2018년 1월에 일떠선 평양교원대학은 훌륭했다.

이미 신문과 방송으로 보고 들어서 일정한 파악은 있었지

만 실지 와보니 류다른 감정을 자아냈다. 대학생교복을 산뜻하게 차려입고 대학구내를 오가는 대학생들을 보니 흘러간 나의 대학시절이 떠오르면서 이런 멋쟁이대학에서 다시 공부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곳 안내원의 종합해설에 의하면 평양시의 소학교와 학령전어린이교육을 담당한 교육자양성의 원종장으로 불리우는 평양교원대학은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새 세기 교원양성기지이다.

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을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대학으로 잘 꾸리고 전국에 일반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개건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짧은 기간에 완공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평양교원대학이 짧은 기간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본보기대학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는 안내원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대학의 여러곳을 참관하게 되였다.

현대적인 교수수단과 기재들, 실용적인 과학기술들이 도입된 소학교교수방법실기실들과 어린이지능계발기술보급실들이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가상현실감기술(VR)이란 사람이 실지 보거나 체험할수 없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와 같은 현실을 직접 보거나 느낄수 있게 하는 기술이며 가상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마련하고 그것을 목적과 의도에 맞게 리용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을 도입한 대학의 소학교교수방법실기실에서는 가상교수체험체계 《헌신 1.0》을 리용하여 대학생들이 실지 교단에서 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하는것과 같은 생동한 체험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정황처리능력을 키우고있었다.

대학에서는 소학교교육현실에 조성되는 인식정황, 규률정황, 외적요인에 의한 정황들을 능숙히 처리할수 있는 강의술을 체득하도록 한다.

유치원교실과 가상교실에서는 가상놀이프로그람 《금모래 1.0》과 가상안경프로그람 탐험 《태양계》, 《북두칠성》, 가상체육유희프로그람을 리용하여 자연계에 존재하는 하늘, 땅, 바다의 지형과 생태일면, 태양계의 움직임과 특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생동하게 체득할수 있게 한다.

이날 대학참관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교실이 있다.

그야말로 따뜻한 정이 감도는 교실, 류달리 눈길을 끄는 교실이였다.

어머니교실이였다.

폭신한 이불이며 꽃베개, 밥상에 놓여있는 숟가락과 저가락, 옷장에 포개져있는 고운 옷들을 보면 다독여주는 어머니의 살뜰한 손길이 느끼여지고 자장가소리도 울릴듯싶었다.

그전에 보던 교실과는 표상이 완전히 달랐다. 교실이라고 하면 의례히 책상과 의자, 칠판부터 생각하는것이 상례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여 원아들이 제일 그리워하는것은 부모의 정이라고,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원아들을 훌륭히 키워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 교실의 설계도면이 되고 교실이름이 되였다는 안내원의 이야기는 충격에 가까웠다.

이 교실에서는 어머니교실용가정교육지원프로그람 《사랑 1.0》을 리용하여 대학생들이 졸업후 교단에 올라 학생들을 교육교양함에 있어서 어머니다운 품성과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고 한다.

나는 여러 나라의 대학들을 참관해본 경험을 가지고있다. 하지만 어머니교실이라는 이름은 처음이였다.

그 이름만 듣고서도 어린이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나라의 관심과 혜택을 가슴후덥게 느낄수 있었다.

이밖에도 모든 실기실들과 보급실들에서는 창조적인 사고능력을 키우기 위한 소조토론방법, 가상현실교편물제작방법과

가상적인 교수정황제작기술, 가상현실감기술을 리용한 교육용영상편집기술, 3D인쇄기를 리용한 교편물제작기술 등을 가르치고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부속소학교와의 원격쌍방향교육방법, 소학교, 유치원의 각이한 환경에서 교편물리용방법, 소학교교육에서 교수와 교양의 결합방법,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결합방법 등 수많은 교육방법들도 배워주고있다.

대학체육관의 경기홀은 롱구, 배구, 탁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경기는 물론 여러가지 행사도 할수 있도록 다기능홀로 훌륭히 꾸려져있었다. 과학기술전당의 축소판이라고도 할수 있는 도서관에서는 콤퓨터국가망을 통하여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의 자료들을 열람할수 있을뿐만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손색없이 꾸려져있는것이였다.

언제나 나라의 교육사업에서 학령전어린이교육과 소학교교육을 중요한 사업으로 보시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8년 1월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시였다.

이날 대학의 교육과학전시관, 교육조종실, 다기능교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그분의 존안에 시종 환한 미소가 어려있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장의 눈가

에는 아직도 그날의 감격이 어려있는듯 했다.

원수님께서는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담당한 교육자들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준것 같고 금방석을 마련해준것 같은 심정이라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눈앞에 선히 그려진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한다.

그분께서는 평양교원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 학생들이 학령전어린이교육과 소학교교육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다해가야 한다고 절절히 이르시고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서 힘과 용기를 얻은 교원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우월한 교육방법들을 련속 창조하고있다고 학장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최근에는 교육용로보트를 리용하여 소학교 학생들에게 쏘프트웨어, 수학, 예술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줄수 있는 과외종합교육방법을 새로 연구하였다고 한다.

직관형상적사고가 우세한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관찰력을 기본으로 한 지능평가를 3차원영상현시기술을 리용하여 진행하는 새로운 평가방법도 착상하였다는것이 학장의 설명이다.

대학에서는 소학생들의 발표능력을 높여줄수 있는 여러가지 수법들을 결합시키고 그들의 인식정도와 교수분위기 등을 예측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효과적인 교수방법도 완성하였다.

이밖에도 어린이들의 사고력, 기억력, 관찰력, 상상력, 언어능력을 종합적으로 계발시키는 지능계발교육정황과 품성교육정황을 새롭게 체계화함으로써 대학생들이 가상교수체험체계를 리용하여 교수실천능력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게 하였다.

놀라운것은 이 모든 성과들이 순수 이 대학 교원, 연구사들의 지혜와 기술, 협력의 산물이라는것이다.

내가 몹시 놀라워하자 학장은 조국에서는 교육부문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국가중대사로, 국가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차대하고 전략적인 문제로 본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앞날의 교원후비들을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키워내겠는가에 대하여 언제나 머리를 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느라면 그런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이날 나는 참관의 마감에 이 대학을 찾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남긴 글을 볼수 있었다.

아래에 인상적인 글들을 그대로 옮긴다.

《자기 아이들을 위해 그처럼 큰 관심과 사랑을 돌리는 그런 나라는 앞으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위대한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경의를 표합니다.》(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지구위원회 위원장 2018. 4. 10.)

《형제적조선인민의 기술발전을 직접 목격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이처럼 훌륭한 대학을 처음 봅니다. 성과만이 있기를 바랍니다.》(에스빠냐인민공산당 정치국위원 2018. 4. 13.)

《평양교원대학의 교육수준이 1위이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세계적인 교육수준을 많이 보았는데 평양에 와서 교원대학을 돌아보니 정말 훌륭하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왕들을 키우는 선생님들을 키우는 대학이 정말 희한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 새롭고 청신한 교육방법을 처음 보았다.》(일본 교도통신사 기자 2018. 4. 13.)

《나의 생애에서 기쁜 시간이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교원양성기지를 본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발전시켜나가고계시는 조국이 정말 훌륭합니다.》(재오스트랄리아동포 리세일)

나 역시 그들과 생각이 같았다. 나는 대학참관에서 받은

감동을 담아 참관록에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오늘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남다른 긍지를 가질수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교육조건과 교육환경을 갖추고 우수한 자질과 품성을 지닌 교육자들에 의하여 교육육성되는 교육자후비들의 모습에서 인재강국으로 부상할 머지않은 앞날의 조국을 보았습니다. 교육사업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내세우는 조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합니다.》

온 나라가 학교, 전민이 학생

몇년사이에 조국은 참으로 많은것이 변했다.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색갈을 입고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일떠서고 새형의 주택지구가 형성되였다.

조국에 자주 체류하군 하는 나자신도 올 때가 다르고 갈 때가 또 다른 조국의 모습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할 때가 많았다.

거리만 달라진것이 아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전보다 더 활기를 띠

고있으며 문명수준도 한계단 더 오른것을 느낄수 있었다.

제일 눈에 띄우는것은 독서열풍이다.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속에도, 뻐스나 지하전동차를 리용하는 사람들속에도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손전화기를 리용하여 신문이나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는것도 일상적이다.

두해전에 내가 김책공업종합대학 앞거리를 지나는데 길건너편 한 건물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사연을 알만 했다. 그 건물인즉은 도서관이였고 도서관옆에 대형게시판을 내놓았는데 거기에는 《교육과 인재》라는 책의 내용들이 련재되고있었다. 나이지숙한 중년의 남성, 딸애의 손목을 잡고 가던 가정부인, 대학생들과 학교에서 돌아오던 소학교 학생들로 사람들의 부류가 참으로 다양했다. 그런 광경은 그후에도 자주 볼수 있어서 나에게 례사로운것으로 되였다.

조국을 처음 방문하는 해외동포들은 누구나 조국인민들의 상당한 독서기풍을 놓고 이야기한다.

언제인가 유럽의 어느 대학에서 어학교수를 지내다 퇴직한 대학선배되는 동포가 나의 권고로 조국을 방문한적이 있었다. 며칠동안 별말없이 지내던 그가 어느날 인민대학습당에 가보고 와서는 오늘 가서 김소월의 시 《초혼》을 읽는 녀학생도

보았고 미철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나 유고 빅또르의 《레 미제라블》을 읽는 대학생도 보았으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듀쎄이아》를 메모하는 청년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서방에서 듣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나의 말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인민대학습당을 가보고서는 확실히 믿게 되였다고, 인민대학습당을 참관해보니 고국의 사람들의 문명수준이 상당하며 그들의 학습열기가 대단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감동에 겨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녀는 1980년대에 벌써 그렇게 훌륭한 전민학습의 대전당을 꾸리고 그것을 인민들에게 통채로 안겨준 고국이고보면 교육의 력사가 깊은것 같다고, 공화국이 얼마나 교육을 중시하는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고국에 대하여 차근차근 알고싶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녀의 말이 옳다. 조국인민들의 독서기풍, 학습기풍은 결코 하루이틀사이에 형성된것이 아니다. 내가 의미있게 읽었던 김상일교수의 저서 《회고록으로 보는 세상이야기》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을 평생 책을 사랑한 지도자, 책을 많이 읽은 지도자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그 책의 한 제목을 여기에 인용한다.

북의 《책읽기운동》에 공감하며

《통일뉴스》에 실린 북의 책읽기운동을 소개한다.

김정일장군님은 학습에서 기본은 책을 많이 읽는것이라 강조하였다. 책읽기가 학습에서 기본으로 되는 세가지 리유를 북의 《로동신문》은 11월 9일부에서 소개하면서 **김정일**장군님은 지식수준을 빨리 높이자면 누구나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책을 많이 읽는것이 왜 학습에서 기본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책읽기가 폭넓고 깊은 지식을 습득할수 있게 하는 가장 훌륭한 학습방법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은 끊임없는 탐구와 독서를 통하여서만 습득할수 있는데 책에는 인류가 오랜 세월 이룩해놓은 방대한 정신문화적재부들이 기록되여있다는것이다. 력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과 유명한 과학자, 발명가들은 례외없이 책을 많이 읽은 정열적인 독서가들이였다고 강조했다.

둘째, 책읽기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높은 지식의 탑을 쌓을수 있게 하는 대중적인 학습방법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즉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유치원어린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남자이건 녀성이건, 그가 학생이건 군인이건, 로동자, 농민, 사무원이건 관계없이 책은 다 읽을수 있기에 책을 많이 읽고 정력적으로 탐구하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할수 있다는것이다.

셋째, 책읽기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 합리적인 학습방법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일생동안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읽는다면 참으로 많은 지식을 쌓을수 있다는것이다.(《통일뉴스》 2007. 11. 10.)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얼마나 독서를 중시하시였는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생전에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자주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라고 교시하시군 하시였다고 한다.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책은 더없이 귀중한 생활의 길동무이며 풍부한 지식의 보물고이라고 하시면서 수많은 책들을 보시였다고 한다.

누구든 두분의 로작들을 읽어본다면 거기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내용과 다방면적인 식견, 천리혜안의 예지, 인민적인 문풍에 탄복을 금치 못할것이다.

조국인민들속에서는 그분들의 독서기풍과 문풍을 따라배우려는 열의가 대단히 높다.

전민과학기술인재강국목표를 내세운 조국이 2016년 전민학습의 대전당이며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인 과학기술전당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운것으로 하여 조국인민들은 문명의 계단을 한층 더 높이 올라서게 되였다고 할수 있다.

올해 정초에 조국을 방문하면서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하였다.

대동강의 쑥섬에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으로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은 건축미가 독특하고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한 하나의 대걸작품일뿐아니라 최신과학기술보급의 거점으로서의 완벽한 능력을 훌륭하게 갖춘 국보적인 건축물이였다.

전당에는 지난 시기에 출판된 과학기술도서들은 물론 조국에서 이룩된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들과 세계 각국의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이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자도서화되여있어 종합적인 전자도서관으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고있었다.

준공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전민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인 과학기술전당을 찾은 참관자수와 열람자수는 연 수백만명이며 홈페지리용자수는 연 수천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새해가 시작되여 며칠동안에만도 과학기술전당을 찾은 사람들의 수는 2만여명이며 홈페지리용자수는 20여만명, 자료열람건수는 100여만건이라니 대단하다고 할만 하다.

각이한 분야의 그 어떤 자료도 마음대로 열람할수 있는 과학기술전당의 정보봉사는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뿐만아니라 향학열에 불타는 조국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관심을 끌고있다고 우리를 안내하던 과학기술전당의 한 일군은 설명했다.

과학기술전당에서는 해마다 성황리에 전국과학기술축전,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등 여러 전시회와 학술토론회, 부문별학술발표회들이 진행되는데 그 기간에는 보통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는것이 그 일군의 이야기이다.

우리일행은 전국적인 실시간원격강의를 보장하고있는 원격강의실, 학령전어린이들과 소학교 학생들의 동심에 맞는 여러가지 전자지능도서를 열람할수 있는 아동열람실, 중학교 학생들이 과목별과외학습자료열람과 응용프로그람들을 리용한 실험실습도 할수 있는 학생전자열람실, 동화상자료들과 륨동영화를 관람할수 있는 동화상열람실, 륨동영화관들을 돌아보았다.

과학기술전당을 매일 평균 수백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와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실천능력을 키우고있다고 하며 그는 말했다.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인 과학기술보급망

이 나날이 확대되여 지금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에는 1만 5천여개의 과학기술보급거점들이 가입되여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봉사를 받는 사람들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있습니다.

과학기술전당홈페지를 통하여 수많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과 자기 단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자료들을 신속하게 봉사받고있으며 하루가입자수는 최고 4만여명, 자료열람건수는 25만여건을 기록하고있습니다.》

조국의 어느 한 신문은 과학기술전당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전당은 마치 자동차들이 쉬임없이 연유공급소에서 연유를 공급받는것처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어느때나 어디에서나 콤퓨터망으로 쉽게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를 부단히 퍼낼수 있는 다시말하여 최신과학기술지식을 끊임없이 배워갈수 있는 거대한 용량을 가진 하나의 대규모자료저장고와도 같은것이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과학기술보급실들이 그물망처럼 덮이고 여기에 과학기술자료들을 물흐르듯이 내려보낼수 있는 최신과학기술보급의 중심거점으로서의 과학기술전당까지 완벽하게 일떠선것으로 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보다 밝은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배울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권리

는 아무 사회에서나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조국인민들만이 누릴수 있는 특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곳을 참관한 어느 한 나라의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른들뿐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과학기술전당은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와 배울수 있는 훌륭한 학습장소이다. 모든 조건과 환경, 시설들이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답게 완벽하게 꾸려진 이곳을 돌아보며 조선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웅대한 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음을 알수 있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전당에 차넘치는 과학탐구의 열기는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조선의 과학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전민이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된 나라, 이것이 바로 다른 나라들에서 상상할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조국의 현실이다.

온 나라가 학습열기로 들끓는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꼭같이 배움의 조건을 마련하여주는 고마운 조국.

나는 조국의 밝은 래일을 확신하며 이곳을 떠났다.

봄순이

12살 난 봄순이는 이악쟁이였다.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을줄 몰랐고 학급에서 한번도 1등을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던 봄순이는 어느날 갑자기 고열이 심하게 나고 센 기침을 하면서 앓아눕게 되였다.

왕진왔던 의사선생님들은 급성페염인데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어떻게 입원을 해…)

봄순이는 몸이 아픈 걱정보다도 한달후에 있게 될 학기말시험이 더 걱정스러웠다.

수업에 한시간이라도 빠지면 1, 2등을 다투군 하는 같은 책상의 광범이가 자기를 따라앞설것은 분명했고 어쩌면 다른 동무들에게도 아예 뒤떨어질수 있다는 위구심때문이였다.

그날 저녁 딸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된 엄마는 봄순이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다.

《너는 괜한 걱정을 하고있단다. 옥류아동병원에는 의사선

생님들만이 아니라 공부를 배워주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던. 입원해서도 학교에서처럼 수업을 받을수 있어.》

병원속의 교실.

병원이라고 하면 하얀 위생복을 입은 의사선생님들과 번쩍거리는 의료기구들만 있는줄 알고있던 봄순이였다.

하여 봄순이는 아무런 걱정없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도 받고 학교에서 나가던 과정안에 맞춰 수업도 받게 되였다.

…

나는 봄순이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봄순이의 아빠이자 나의 안내원인 철민선생에게서 듣게 되였다.

그는 한밤중에 딸자식과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자신도 고마운 나라의 혜택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느꼈다고 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자식들이 최상급의 병원에 입원하여 담당의사와 담당교원을 곁에 두고 무상치료와 무료교육을 함께 받는 조국의 품은 얼마나 따사로운가고 철민선생은 절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딸애가 퇴원하는 날이여서 들려보려고 한다는것이였다.

《철민선생의 따님한테 나도 함께 들려보고싶군요. 봄순이도 볼겸, 병원도 구경할겸 환자들이 공부한다는 교실에도 들

려보고싶구요.》

나는 이모저모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옥류아동병원결을 여러번 지나면서도 거기에 학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때문이였다. 나에게 좋은 시간이 될것이라고 확신하며 나는 곧 철민선생을 따라 봄순이가 있는 옥류아동병원으로 향했다.

조국녀성들이 친정집이라고 부르는 평양산원과 마주하고있어 마치 엄마품에 안긴 아기를 떠올리게 하는 옥류아동병원이였다.

다시 보니 지능놀이감으로 탑을 쌓아놓은듯 한 건물의 외형이 새롭게 안겨왔다.

병원내부는 마치 동화미술전시장에 온듯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내부벽면들이 온통 동화그림들로 꽉 차있었던것이다.

《소년장수》, 《나비와 수닭》, 《령리한 너구리》, 《놀고먹던 꿀꿀이》를 비롯하여 조국의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속에서도 대단히 인기있는 만화영화들과 세계명작동화집들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방들과 복도의 벽면을 꽉 채우며 실물처럼 살아움직이는듯 했다.

병원의 중앙홀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아래서 마음껏 뛰여노는 아이들을 형상한 아크릴화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있었는데 바라보느라면 화려하게 장식된 극장에 온것 같은 느

낌이 들었다.

여기저기에서 동화의 세계에 심취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철민선생은 이 모든 그림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건한건 다 보아주시고 미술가력량까지 친히 보내주시였다고 귀띔해주었다.

몹시 놀라웠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은 대단히 세심하시고 다심하신분이라는 생각도 다시한번 들었다.

봄순이가 있다는 방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여러곳에 꾸려진 실내놀이장과 휴식장들에서 자기가 환자라는것을 잊고 뛰여노는 귀여운 아이들을 볼수 있었다.

그 아이들을 홀린듯 바라보는 나에게 안내원은 말해주었다.

어린이들에 대한 치료가 매 과별로 세분화되여있으며 입원한 어린이에 대하여서는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한다는것, 이곳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은 병력서에만 이름이 있는것이 아니라 병원에 꾸려진 교실들의 출석부에도 이름이 오르게 된다는것, 병원에서의 교육사업은 한명의 교육자가 수십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서와는 달리 입원환자들의 학년과 지능상태 등이 서로 다른것으로 하여 개별지도가 위주로 되고있다는것을.

봄순이는 방에 없었다.

담당간호원은 봄순이가 어머니와 함께 중학교교실에 있을 거라고 했다. 배워준 선생님과 작별인사를 하러 간다면서 나갔다는것이다.

순간 반가운 감정이 생겼다.

《철민선생, 온 가족이 다 모였군요. 난 봄순이 엄마까지 만나볼수 있겠고.》

봄순이가 쓰던 사물함우에는 펼쳐진 몇권의 학습장과 교과서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그 이악쟁이가 금방까지도 공부를 한듯 했다.

아직은 이름밖에 모르는 봄순이의 얼굴을 상상하며 나는 그 책들을 펼쳐보았다. 또박또박 곱게 쓴 글씨는 봄순이가 참으로 똑똑한 아이라는것을 말해주는듯싶었다.

이때 내결에서 다른 학습장을 들여다보던 안내원은 《선생!》 하고 나를 찾더니 펼쳐든 학습장을 내게 내밀었다. 들여다보니 봄순이의 일기였다.

아무리 아이의 일기래도 남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것 같았지만 아버지가 승인한것이라 나는 마음의 부담없이 읽어내렸다.

아이의 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담겨있었다.

인상에 남았던 일기를 여기에 인용한다.

X월 X일 날씨 흐림

선생님의 얼굴

옥류아동병원의 중학교교실에서 공부를 시작한지도 벌써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선생님은 나에게 많은것을 배워주셨다.

처음에는 학급동무들보다 뒤떨어질가봐 걱정했지만 아마 지금쯤이면 내가 동무들보다 더 많이 배웠을것 같다.

오늘 수학공식을 새로 배웠는데 리해하기 정말 힘들었다.

매번 그랬지만 오늘도 선생님은 욕하실 대신에 웃으시며 차근차근 가르쳐주셨다.

선생님이 웃으실 때마다 조마조마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공부를 더 잘해서 선생님에게 기쁨을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흐린 날씨로 밖은 좀 어두웠지만 선생님이 웃으시는 우리 교실은 밝았다.

나는 퇴원후에도 선생님의 밝은 얼굴을 잊을것 같지 못하다.

X월 X일 날씨 개임

교실에 온 손님들

오늘 우리 교실로는 많은 외국손님들이 찾아왔다.

영어수업이 한창이였는데 한 남자손님은 엄지손가락을 흔들면서 통역원언니와 부지런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주고받는것이였다.

나는 외국손님들이 영어로 이야기하지 않을가 하고 귀를 강구고 들었지만 알아들을수 없었다.

외국손님들도 돌아가고 수업이 끝나서 선생님에게 이 말을 했더니 웃으시면서 저 사람들은 오스트랄리아사람들인데 그들도 영어를 사용한다, 봄순이가 외국어공부를 꾸준히 하느라면 통역원언니처럼 그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도 할수 있을것이라고 신심을 안겨주었다.

나는 아쉬웠다.

만약에 내가 영어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했더라면 오늘 오스트랄리아사람들에게 우리 나라에 대하여, 병원에서도 마음껏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의 기쁨에 대하여 자랑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였다.

난 앞으로 영어공부를 잘해서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손님들에게 통역원언니의 도움을 받지 않고 꼭 내 목소리로 말하겠다.

나는 봄순이가 그렇게 사랑하는 선생님도 만나보고 교실에도 가보고싶었다.

《철민선생, 나 그 교실에 가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에 그는 여느때와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이럴줄 알았으면 병원측에 이야기해서 안내원을 한명 붙여달라고 했을걸 그랬다면서.

입원실, 치료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는 유치원교양실과 소학교교실, 중학교교실에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었다.

봄순이는 우리가 생각했던대로 중학교교실에 있었다.

이름처럼 고운 봄순이는 처음 보는 나였음에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봄순이의 엄마도, 봄순이를 배워준 교원도 어서 오라며 두손을 잡아이끌었다.

마치 혈육을 만난듯 반가워하는 그들의 손을 잡고보니 온몸에 찌르르 전류가 흐르는것 같았다.

《봄순이가 교실을 떠나기 아쉬워하는걸 보니 선생님의 성

의가 대단했던거구나.》

나는 봄순이의 일기를 머리속에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선생님과 학급동무들이 보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바치시는 선생님의 사랑이 이 교실에 정들게 했습니다. 나뿐이 아니라 먼저 퇴원한 동무들도 정말 떠나기 섭섭해했습니다.》

나는 봄순이의 곁에 미소를 함뿍 담고 서있는 교원에게 물었다.

《건강한 아이들도 학습열의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앓는 아이들의 학습열의가 대단한걸 보니 선생님들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는것 같습니다.》

교원은 이야기했다.

《비결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애들을 단순히 학생이나 환자들이 아니라 친자식처럼 대해주고있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공부에도 취미를 붙이고 또 치료사업에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설명했다.

이곳 교육자들은 어린 환자들의 성격과 취미, 지능정도를 정확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문제의 본질을 대번에 리해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고있다고.

잠시 말을 끊었던 교원은 《언제인가 한 외국손님이 우리

교실을 참관하고나서 이 병원이야말로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의 혜택을 다같이 받을수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병원이라고, 사회주의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정말 옳습니다. 평범한 로동자, 농민, 사무원의 자식들이 이처럼 훌륭한 병원에서 무상치료와 무료교육을 받는 우리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내가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이 퇴원후에도 자기를 품어주는 고마운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랄뿐입니다.》라고 말했다.

봄순이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그의 어머니도 말했다.

《처음 봄순이를 병원에 입원시킬 때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훌륭한 선생님들의 강의까지 받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난 이번 학기말시험에서도 꼭 1등 할래요.》

봄순이는 귀엽게 덧이를 보이며 활짝 웃었다.

모두가 그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봄순이의 손을 잡고 옥류아동병원을 나서는 나의 눈앞에 옥류아동병원을 품에 안은듯 한 평양산원이 안겨온다.

불현듯 나의 머리에는 온 나라 아이들을 따뜻이 안아주는 조국의 품에 대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아버지가 계신다

불쑥 나의 머리속에는 퍽 오래전에 나의 동료가 들려주었던 이런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조국이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던 1990년대 중엽에 조국의 지방도시를 찾았던 나의 동료는 공원에서 좋아라 웃으며 뛰놀고있는 몇명의 아이들을 보게 되였다고 한다.

나라의 어려운 경제형편은 아이들의 옷차림에도 력력하게 나타나고있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조선에 대한 좋지 못한 서방의 선전만을 들어온 그로서는 자기도 모르게 동행하던 안내원에게 이렇게 묻게 되였다.

《참, 귀국에도 고아들이 있겠지요?》

안내원은 별로 처음 받는 질문이 아니라는듯 머리를 끄덕이고있었지만 안색은 흐리고있었다. 몹시 마음아파하는것 같았다.

《여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창 응석을 부려야 할 아이들이 량부모를 잃는 경

우가 있습니다. 가슴아픈 일이지요.》

잠시 동안을 두었던 그는 격양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고아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

동료는 의아해졌다.

고아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도 부모를 여의고 키워줄 보호자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 부르거늘 대체 무엇이라 달리 부를수 있단 말인가?

안내원은 침착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고 한다.

《우리 조국에서는 부모잃은 아이들의 운명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서 책임집니다. 우리 공화국은 해방후에도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모든 아이들을 나라에서 맡아 키우는것을 중단하지 않았을뿐아니라 부모잃은 아이들을 위하여 육아원과 애육원들을 내왔습니다.》

안내원은 잠시 말을 끊었다.

나란히 걷는 그들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의 무게가 결코 가벼운것이 아님을 나의 동료는 폐부로 느꼈다고 한다.

《오늘 또다시 나라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습니다. 한알의 쌀조차 귀중한 지금입니다. 하

지만 국가에서는 육아원과 애육원들에 당과류와 과일, 콩우유를 먼저 보내주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장군님께서는 육아원들에 석탄을 제대로 실어다주지 못하고 식료품도 정량대로 공급해주지 못해 아이들의 양육에 지장을 받고있다는것을 아시고 너무도 가슴아파 잠 못 이루시며 전국의 육아원들에 대한 후방보장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계획된 식량과 부식물, 피복류 등 물자와 자재를 무조건 보장할 특별조치를 취해주시고 아이들이 춥지 않게 지낼수 있도록 먼적외선가열기를 연구생산할 특별과업도 친히 주시였습니다. 친부모보다도 더 따뜻한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과 국가의 철저한 보호속에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고아라고 부르겠습니까?》

나의 동료는 깊은 감동을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고 한다.

…

나는 따스한 봄기운이 감도는 학교구내에서 서로 얼싸안고 웃고 떠드는 평양중등학원 원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동료의 말을 떠올렸다.

두번째로 찾아오는 평양중등학원이다.

처음 평양중등학원이 새로 일떠섰을 때 왔었다.

그때 나는 훌륭하게, 완벽하게 꾸려진 새 교사를 보고도 놀라웠지만 여기에서 공부하는 주인공들이 다름아닌 부모없

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도 아이들의 얼굴은 한점의 그늘도 시름도 없었다.

내가 정말 놀랍다고 이야기하자 나를 안내하던 교장은 전국의 도와 직할시에 일떠선 육아원, 애육원과 초등학원, 중등학원건물들은 만리마시대의 건축술을 상징하는 건물들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면서 학원을 찾았던 많은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고아들이 이런 학교에서 공부한다는것을 엄두도 못 낸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였다.

어느 한 유럽인은 밝게 웃으며 기쁨에 겨워있는 저 원아들을 보고 누가 부모없는 아이들이라고 하겠는가고 하면서 저들의 밝은 얼굴은 조선의 학생소년들이 향유하는 복이 어떤것인가를 뚜렷이 실증해주는 산 화폭으로 된다, 조선에서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 고아들이 불행의 나락에서 헤매는 불운아, 사회의 골치거리로 되고있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너무나 대조되는 이 현실에 정말 놀랍기만 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장이 들려준 하나의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몇해전 여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돌아보시였을 때의 일이다. 기쁨과 만족의 미소가 넘치는 안광으로 교사를 돌아보시며 평양중등학원은 중등교육환

경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원아들에게 멋쟁이학원을 안겨주게 되였으니 하늘의 별을 따온것 같이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이때 한 일군이 학원옆을 지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자녀들도 이 학원에서 공부시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는것을 정중히 아뢰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부모없는 아이들의 세상이 되였다고 말하는 사실까지 덧붙여 말씀드리였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으기 안색을 흐리시면서 원아들은 부모없는 아이들이 아니라고, 원아들은 모두 당의 아들딸들이라고, 나는 아들딸부자가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는 것이였다.

당의 아들딸, 아들딸부자!

정과 사랑이 듬뿍이 안겨오는 따뜻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였다.

원장선생은 그동안 평양중등학원을 본보기, 표준으로 하여 각 도에 교육조건을 훌륭히 갖춘 초등, 중등학원들이 련이어 일떠섰을뿐아니라 전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속에 조국의 모든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대화,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고 하였다.

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는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저 아이들의 얼굴에서 떠날줄 모르는, 지워질줄 모르는 밝

은 웃음.

수십년세월 교육자로 살아오면서도 부모없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가 교육의 본보기, 표준으로 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나는 들은적이 없다.

바로 부모없는 아이들도 나라의 기둥감들로 귀중히 여기는 조국에서만 생겨날수 있는 후대사랑의 훌륭한 화폭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고아는 무시당하는 존재들이다.

부모를 잃거나 부모로부터 버려진 고아들의 고통을 보통사람들의 마음으로는 헤아릴수 없으리라. 수많은 고아들이 이 나라, 저 나라로 입양되여 가고있는것도 현실이며 양부모를 만나서도 기쁨과 즐거움, 배부름이 아니라 학대와 멸시, 배고픔속에 살다가 쫓겨나거나 지어 생명까지 잃는 아이들이 수다한것도 현실이다. 과연 고아들은 대지에 잘못 뿌려진 씨앗이고 삭정이란 말인가.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이 부모있는 아이들보다 더 훌륭한 환경과 조건에서 충실하게 자라는것이다.

마침 내가 학원을 찾았던 그날 대학에 입학한 원아들을 바래우려 수많은 사람들이 학원정문에 장사진을 치고있었다.

학원원아들과 교직원들이 학원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을 저저마다 껴안고 놓을줄을 몰랐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굽을 붉혔다.

우리일행중에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도 그들과 사진을 찍었다.

어느덧 시간이 되여 교문을 나서야겠는데 학원졸업생들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고 나는 생각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학원은 고향집뜨락과 같지 않겠는가.

이때였다.

눈굽을 훔치던 학원졸업생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일제히 뒤로 돌아서는것이였다. 그리고 《아버지!》 하고 목청껏 웨치며 교사의 정면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어푸러질듯 달려가는것 아닌가.

그 모습에 그들을 키워준 학원교직원들도 하급생들도 마치 어린애마냥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다. 요란한 박수소리가 학교구내를 진감하는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뗀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합창으로 울려나왔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아이들은 눈물을 지어내지 못한다. 세상에서 아이들만큼 거짓을 모르는 존재는 없기때문이다.

10대의 저 아이들의 얼굴에 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세상에 부럼없다고 목청껏 노래하는 다름아닌 원아들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그것은 친부모도 못 준 깊은 정과 사랑으로 애지중지 보살펴 나라의 기둥감들로, 역군으로 키워 내세워준 나라의 은덕이 얼마나 그들의 심장에 깊이 자리잡았는가를 보여주는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확신했다.

저애들의 가슴속엔 벌써 조국애가 꽉 차있다. 저들은 자기를 키워준 고마운 조국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할것이며 앞으로 조국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게 될것이다.

원아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조국땅우에 대를 이어 계속 울려퍼질것이다.

아줌마발명가, 영예군인시인

최근 조국에서는 푸초로 만든 음식이 인기다.

호텔식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그마한 식당의 메뉴에도 푸초로 만든 음식이 빠지지 않는다.

푸초김치, 푸초만두, 푸초장절임, 푸초나물, 푸초버섯볶음, 푸초랭국, 푸초된장국 등 내가 대충 꼽을수 있는것만 해도 30가지는 된다.

푸초는 맛있고 영양가가 높으며 향기롭고 건강에 아주 좋기때문에 국가에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도록 하고있다고 어느날 동석식사를 하던중에 우리일행의 길동무인 운전수가 귀속말로 이야기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의하더라도 푸초는 독이 없으며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위속의 열기를 없애며 허약한것을 보하고 허리와 무릎을 덥게 하는데 남새가운데서 성질이 제일 따뜻하고 사람에게 리롭기때문에 늘 먹으면 좋다고 하였다.

이렇게 좋은 푸초를 사람들의 식생활에 장려하도록 하니 조국의 시책은 참 인민적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푸초로 만든 료리들로 한상 잘 먹고났는데 식사의 마감에 내오는것도 다름아닌 푸초발효음료였다.

고뿌를 들고 그 향기를 느끼고있는데 언제 봐야 해학적인 익살로 즐거운 분위기를 유도해내는 우리 안내원이 푸초발효음료개발자가 40대의 녀성인데 자기가 잘 아노라고 하면서 모두의 호기심주머니를 찔렀다.

(아줌마발명가?)

알고싶은 충동이 생겼다. 그러나 안내원은 여느때처럼 딴전을 부리며 정보의 값을 올리는것이였다.

《우리하구만 친한줄 알았더니 모르는 녀자가 없어요? 이젠 음료전문가하구두 친해요? 오지랖이 꽤 넓으시다.》

나는 능청스럽게 역습했다.

좌중에는 폭소가 터졌다.

불의에 조성된 정황에 안내원은 그답지 않게 얼굴이 벌개졌다.

그때 보니 부끄러움을 잘 타는 순박한 사람이였다. 나는 처음으로 대화중에 땀을 빼는 그의 모습에 박장대소했다.

두손을 내흔들며 바빠하던 안내원은 자기도 우스운지 큰소리로 웃었다. 정말 우리일행모두가 한껏 웃었다.

《아, 우리 집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사이여서 잘 알지요. 우리 집 주변에 문수각이라고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거기 료

리사랍니다. 이 푸초음료는 그가 원격교육대학에서 강의를 받는 과정에 착상해내고 완성시킨거랍니다.》

인차 자기를 수습한 안내원은 이렇게 말머리를 뗐다.

그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어느날 장철구평양상업대학 원격교육대학 학생인 김영실이라는 녀성료리사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푸초에 대한 원격강의를 받았다.

여러번이나 새로운 발효음료를 만들어 내놓은 경험이 있는 그는 푸초를 가지고 초음료를 만들고싶은 충동을 누를수 없었다. 하여 함께 원격교육을 받고있는 한 녀성과 원격교육대학의 지도교원을 찾아가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았다.

그들의 생각을 원격교육대학의 지도교원들도 적극 지지해나섰으며 도와주었다. 대학에서는 원격강의를 통하여 푸초와 관련한 자료며 음료만들기방법과 경험을 그들에게 가르쳐주었다.

그들은 봉사의 여가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천해보기도 하고 모를것이 있으면 원격강의실을 찾아 제기된 문제의 해답을 받기도 하면서 연구를 심화시켰다. 하여 끝내 새로운 푸초음료를 만들어냈다. 이뿐이 아니였다. 이곳 종업원들이 거의모두가 원격대학 학생들인데 그들도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구현하여 여러가지 기능성음료를 만들어 내놓아 사람들을 놀

래웠다는것이다.

안내원은 말했다.

《원격교육의 생활력이 바로 이게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로동자들도 창의고안명수로 키워내니 말입니다.》

조국에서 원격교육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는데 대하여서는 나도 이미 잘 알고있었다.

조국땅 어디를 가나 원격강의실들이 훌륭히 꾸려져있으며 누구나 그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고있다. 물론 무료이다.

불현듯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다.

숯으로 그려놓은듯 한 짙은 눈섭, 그밑에서 이글거리는듯한 억실억실한 두눈, 휠체어에 몸을 싣고있었지만 온몸이 그대로 불덩이같은 정열적인 청년.

이야기에 집중할 때마다 두손을 자주 흔들며 이야기하던 청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가 바로 영예군인시인이며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학생인 전성철이다.

2018년 가을 어느날.

류숙하던 호텔 가까운 곳의 공원에서 산책하고있던 내가 그를 눈여겨보게 된것은 휠체어를 타고있기때문만이 아니였다. 손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수첩에 부지런히 무엇을 쓰고있

었던것이였다. 너무 열중하는 모습이 나의 호기심을 끌었다.

(대체 저 청년은 무엇을 하고있을가?)

이런 생각을 하며 그의 곁에 다가섰을 때 나는 그가 원격강의를 받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나는 놀랐다. 아니, 그 청년이 돋보였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것이다.

불구의 몸이지만 향학열에 불타있는 저 청년은 얼마나 훌륭한가.

수업을 다 받고 손전화기를 주머니에 넣는 청년에게 나는 넌지시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온 동포입니다. 한가지 물어도 괜찮을가요?》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던 청년이 동포라는 나의 소개에 대번에 얼굴이 밝아졌다. 그의 정찬 웃음이 나의 가슴을 쏙 파고들었다.

조선사람이란 한마디가 이렇게 초면부지의 사람들조차도 순간에 정이 통하게 만드는것이다. 감격하는 순간이였다.

《무슨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받고있었나요?》

《시창작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시인이신가봐요?》

《에, 시인이라기보다 시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휠체어를 탄 시인이라?

시나 소설이나 모두 체험의 산물이 아닌가. 의족을 하고있는 저 청년이 어떻게 현실속에 들어갈수 있으며 시를 써낼수 있을가.

청년은 나의 두눈에 호기심이 강하게 어리는것을 느낀듯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른다.

해외에서 온 이 나이든 녀자가 호기심도 참 많다고.

하지만 교육에 대한 글을 쓰고있는 나로서는 놓치고싶지 않은 취재대상이였다.

청년은 나의 마음을 리해한듯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저는 영예군인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어릴적부터 시인이 되는것이 소원이였답니다. 군사복무의 나날에는 자주 전우들앞에서 자작시를 읊군 하였지요. 모두가 저를 병사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는 회억의 미소가 어렸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다리를 상한 영예군인이 어떻게 시대를 편답하며 침상에서 쓴 시가 어떻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단 말인가.

제대되여 집으로 돌아온 전성철청년은 이런 생각으로 가슴

이 더 아팠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신문에서 한 영예군인시인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였다. 영예군인의 삶을 꽃피워준 고마운 제도에 대해 구가한 낯모를 영예군인의 시줄이 그의 가슴을 쩌릿하게 해주었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고향에 들어서던 날 영예군인메달을 쓸고 또 쓸며 조국을 위해 장한 일을 하였다고 다정히 등을 두드려주던 모교의 선생님들과 마을사람들, 혈육처럼 지내자며 힘과 용기를 주던 사람들과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알게 모르게 와닿군 하던 나라의 사랑과 은정…

(기사의 주인공도 영예군인이고 나도 영예군인이다. 하지만 두 영예군인의 삶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호되게 질책한 그는 시창작에 달라붙었다.

하여 그는 얼마후에 시초 《나의 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창작하게 되였고 그 작품이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모집에 당선되게 되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청년의 시창작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휠체어를 타고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의 창작을 도와주러 작가들도 찾아왔다.

그는 쉬임없이 시를 썼다. 그가 쓴 한편한편의 시는 영예

군인을 위해 진정을 바쳐가는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 드리는 감사의 인사였다.

얼마후 그는 전국청소년학생문예작품현상모집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그는 말했다.

《나라에서는 저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배움의 열망을 헤아려 **김일성**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영예군인대학생이라고 원격교육대학에서는 남달리 관심하며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교과서들과 참고도서들도 선참으로 보내주었고 지도교원들도 자주 찾아와 저의 학습을 방조해주군 합니다.

그런 사심없는 진정속에 저는 여러해동안 더 많은 지식을 쌓을수 있게 되였답니다.》

그 기쁨, 그 자랑은 그가 쓰는 시들에 그대로 옮겨졌다. 얼마전에는 시 《심장의 고백》을 잡지 《청년문학》에 내여 청년문학상을 받는 영예도 지니였다고 그는 이야기했다.

자기가 금방 손전화기로 받은 원격수업과 관련하여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자기 집이나 사무실에서 혹은 길을 가면서도 손전화기를 활용하여 원격교육을 받고있다. 필

요한 때에 어느 장소에서나 마음대로 강의를 받고있으며 아무때나 손전화기를 켜고 모를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고 시험도 치고있다.

손전화기에 의한 원격교육체계는 콤퓨터망을 통한 원격교육체계보다 한계단 높은 수준으로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리상적인 교육형태라고 생각한다.

시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수 있는 손전화기를 리용한 원격교육의 우월성이 현실에서 증명되면서 그 희망자수가 늘어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콤퓨터망을 통한 원격교육체계를 리용하여 대학이 통채로 생산현장을 찾아왔다면 이제는 손전화기에 의한 원격교육체계를 리용하여 대학이 개별적인 학생을 찾아가는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

청년은 자기 특유의 손세를 써가며 정열적으로 이야기했다.

…

《이렇게 좋은 푸초발효음료 만들어낸 그 발명가를 만나러 한번 가야겠어요. 비법 좀 알려달라구.》

좌중에는 또다시 웃음바다가 펼쳐진다.

그들과 어울려 웃는 나의 눈앞에 푸초음료발명가나 영예군인시인뿐만이 아닌 수많은 로동자대학생, 로동자발명가들의 모습이 환영으로 떠오른다.

3. 뿌리와 알찬 열매

사람들 누구나 사랑하는 아름드리 거목들마다에는 땅속깊이에서 묵묵히 자기의 수고를 다해가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다.

뿌리가 부실하고 자기의 구실을 잘하지 못하면 향기로운 꽃이나 알찬 열매는 고사하고 쭉정이밖에 달릴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후대들을 나라의 미래, 래일의 기둥감들로 어엿하게 키워가는 교육자들도 뿌리와 같다고 말할수 있다.

나는 이제 여기서 그 누가 알아주건말건 나라앞에, 조국의 미래앞에 지닌 숭고한 책임감을 간직하고 후대교육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는 조국의 미더운 교육자들과 훌륭한 교육제도의 혜택아래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라는 알찬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무엇을 위해?

사람이 직업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것이다.

흔히 건강, 돈, 편리함 등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것이 보편화된 오늘날 사람들은 그 조건에 부합되는 직업을 선택하며 거기에서 애착을 갖고 보람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까놓고보면 이것은 생존활동에 연연하는 리기적욕구에 불과하다 해야 할것이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가. 누구나 한번쯤 혹은 자주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물음이다. 바로 《무엇을 위해?》라는 이 물음앞에 남부럽지 않게 떳떳한 사람이 실지로 행복한 사람일것이다.

무엇을 위해?

나도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모색하던 날이 적지 않다.

어느날 나는 또다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였다.

무엇을 위해 나는 교육자가 되였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있는가.

그날은 지금으로부터 몇년전 조국의 지도우에 하나의 작은 점으로 찍혀진 랍도에 대하여 알게 된 날이였다.

평안북도안의 수백개 섬들중에서 뭍과 제일 멀리 떨어져있는 이 외진 섬에 나에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하여준 주인공이 살고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어느날 깊은 밤 한 녀인이 지도를 펼쳐든채 책상앞에 마주앉아있었다. 신의주교원대학부속 인민학교(당시) 교원 인정순이였다.

그는 지도에서 어느 한 섬을 찾고있는중이였다. 한참만에야 겨우 자그마한 점과 함께 《랍도》라는 글자가 눈앞에 밟혀왔다.

그의 뇌리에서는 함께 퇴근길에 올랐던 교장이 얼마전 국가적인 조치에 의해 무인도였던 랍도에 등대가 새로 서고 등대원들의 자식들을 위한 분교가 일떠서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랍도분교에 자원진출한 대학졸업생처녀가 며칠전 급병으로 큰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되려면 몇달은 실히 걸려야 한다고 하던 말이 좀처럼 사라질줄 몰랐다.

인정순은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왜서인지 정신이 새록새록 맑아지며 쉬이 잠들수 없었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지도를 펼쳐들고 또다시 랍도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도, 그 다음날도 남편에게 끝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남편이 자기의 공장을 얼마나 사랑하고있는지, 열살안팎의 어린 두 아들까지 모두 데리고 정든 곳을 떠나 외진 섬으로 들어간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바가 아니기에 섬 분교 교원이라는 말을 쉽게 외울수 없었고 선뜻 결심을 내릴수는 더욱 없었던것이다.

그로부터 며칠후 인정순은 딸네 집을 찾아온 어머니에게 그간 품고있던 속생각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얼마간 깊은 침묵이 흐르던 끝에 어머니는 혼자소리인듯 뇌이였다.

《그러니 분교는 섰는데 교원이 없단 말이지.》

이윽토록 딸을 여겨보던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지난해 7월 어버이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를 다지던 때를 잊지야 않았겠지. 넌 그때 뭐라고 했니. 전쟁로병의 딸답게, 전시공로자의 딸답게 수령님의 유훈관철에 언제나 앞장서겠다고 결의다지지 않았니.》

어머니는 딸에게 절절히 말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주석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그리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조국의 미래를 지키시려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걷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에 대하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기들의 맹폭격속에서도 초소를 뜨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 교환대를 지켜낸 어제날의 처녀교환반장이였던 어머니의 이야기는 인정순의 가슴을 새삼스럽게 파고들었다.

그날 공장의 혁신자이며 청년동맹초급일군인 남편은 인정순에게 말했다.

《그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거요. 그러나 끝까지 갈길이면 난 반대없소.》

이튿날 인정순은 아침일찍 학교로 출근하여 교장실에 들어섰다. 이윽고 울리는 나직한 목소리.

《제가 랍도로 가겠습니다.》

《!》

그는 이렇게 머나먼 섬분교의 교원이 되였다. 그가 부모형제들과 학교 교원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섬으로 들어가던 때는 조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나서자란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대학공부까지 시켜준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순간이나마 교단이 비여있는 현실을 외면할수 없기에 누구나 쉽게는 할수 없는 결심을 내렸던것이다.

분교에서의 교원생활 첫 시기 인정순과 섬마을아이들은 꿈만 같은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게 되였다.

방학을 맞아 뭍으로 나왔던 교원과 학생들이 강추위에 배길이 막혀 개학날이 가까와와도 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사랑의 비행기를 보내주시였던것이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름없는 섬분교의 교원, 학생들을 위해 비행기를 보내주시다니?)

꿈아닌 현실앞에서 인정순과 학생들은 물론 섬마을사람들 모두가 크나큰 감격과 행복에 겨워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섬분교의 학생들을 위해 날은 사랑의 비행기, 그것은 조국의 만년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교단은 순간도 비여서는 안된다는 조국의 당부로 인정순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졌다.

언제인가 인정순이 온몸이 불덩이같이 달아오르며 심하게 앓을 때였다. 가까스로 수업을 보장하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난 그는 교실바닥에 그만 쓰러지고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저녁시간이 다되여도 들어오지 않는 안해가 걱정되여 분교를 찾았던 남편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가 급히 안해를 둘쳐업으려는 순간이였다.

남편의 등을 가볍게 밀며 인정순은 말했다.

《영일이 아버지, 이제 집에 들어가 포근한 이부자리에 누

워버리면 다시는 자리에서 일어설것 같지 못해요.》

다음날 아침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랍도분교에서는 수업종소리가 정답게 울렸다. 학교출입문앞에는 고열속에 신음하며 분교에서 한밤을 밝힌 인정순이 밝은 웃음을 짓고 서서 학생들을 맞이하고있었다.

교단은 순간도 비울수 없다!

그는 이런 드팀없는 자각을 지니고 비록 뭍과 멀리 떨어져있고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외진 섬이지만 지난 22년동안 단 하루의 결근도 없이 조국이 맡겨준 성스러운 초소－랍도분교를 성실히 지켜왔다.

그를 원형으로 한 영화가 있다. 제목은 《사랑의 종소리》.

22년간에 그가 키워낸 제자는 20명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같이 끌끌하고 어엿하게 성장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장마다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는 이들은 못 잊을 섬분교에 대하여 추억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군 한다.

비록 1㎢도 채 안되는 외진 곳이여도 섬분교에서의 배움의 나날은 나어린 가슴에 조국이라는것을 안고 산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다고.

이들이 자기의 스승을 추억할 때면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이 랍도분교의 교탁우에 언제나 놓여있는 색바랜 한권의 책－인정순교원의 출근부라고 한다.

단 한사람의 이름이 올라있는 섬분교의 출근부!

섬분교에서 첫 수업을 진행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정리하고있는 출근부, 그것은 집과 학교가 맞닿을듯 붙어있고 주민이래야 등대원 3명과 그 가족이 전부인 외진 곳, 언제나 고정불변한 섬생활속에서 인정순교원을 말없이 고무하고 일깨워주는 길동무였다고 제자들은 두고두고 잊지 못해하는것이다.

나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해지는것을 느꼈다.

나에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준것은 다름아닌 그 교원의 제자와 대학동창생이며 막역지우인 나의 안내원 김성호였다.

호텔로비에서 그와 이야기하던중에 우의 이야기를 듣게 된것은 TV화면으로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소식이 나왔기때문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37돐을 맞으며 진행된 대회였다.

안내원은 자기의 딱친구가 며칠전 전화를 걸어왔는데 자기의 잊지 못할 스승이 이 대회에 참가하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면서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뵙고 인사를 하여야겠다고 하는것이였다.

무엇인가 마음이 간절해지는것을 느꼈다.

나도 만나야 했다.

그렇게 훌륭한 인간을 만나게 된다면 내 일생에 얼마나 큰 행운이겠는가.

나는 대회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인정순교원과 자리를 마주하게 되였다.

내앞에 두손을 포개고 점잖게 앉은 머리희슥한 녀인, 바다바람에 그슬린 구리빛나는 얼굴.

상상했던것보다 더 수수하고도 평범한 녀성이였다.

과연 이렇게 소박한 녀성의 심장에 그렇듯 열렬한 애국의 마음이 자리잡고있단 말인가. 그와의 만남을 나는 평생 잊을수 없을것이다.

그렇게 외진 곳에서 힘든적이 없는가고 묻는 나에게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제인가 교실에서 1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이 나란히 앉아 공부를 할 때였다.

1학년 학생에게 글짓기과제를 주고 인차 3학년 학생에게로 돌아서서 동물상식에 대한것을 가르치던 인정순은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글짓기에 여념이 없을줄 알았던 꼬마가 오히려 입을 헤- 벌린채 3학년 형님의 수업내용에 정신이 팔려있는것이 아닌가. 그 학생의 잘못을 지적해주고나서 다시 동물상

식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지만 몇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현상이 반복되였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후 인정순은 분교의 특성에 맞는 새롭고도 현실적인 교수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낮과 밤을 이어갔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아침 첫 수업에 한명의 학생이 결석했다. 수업을 마치고 그 집에 가보았더니 아침일찍 책가방을 메고 등교했다는것이였다.

곧 섬마을이 떨쳐나섰다. 그러나 바다가로부터 해묵은 풀숲에 이르기까지 섬을 샅샅이 훑다싶이 해도 학생의 그림자조차 찾을수 없었다. 그런데 한낮이 기울무렵 얼굴에 온통 검댕이칠을 한 학생이 도래굽이의 바위짬속에서 나타나는것이 아닌가.

수업에서 빠져 온 하루 갈매기알을 구워먹느라 시간가는줄도 모른 소년, 인정순은 너무도 억이 막혀 말이 다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나어린 《자유주의자》가 결석한 리유를 말하는 순간 그는 얼굴이 활딱 붉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수업이 재미없습니다.》

(바로 그래서였구나. 며칠전 자연과목수업을 할 때 아무리 벼에 대한 설명을 해도 아이들의 눈빛은 어딘가 허공에 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할수록 어려운 섬조건이라고 해서,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 직관성과 생동성이 없는 수업을 하면서도 조건이 불리하니 별수 없다고 위안해온 자신이 못내 부끄러웠다. 그날 인정순은 교편물과 직관물작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을 총화해보며 그것을 드팀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늘 랍도분교의 교육조건과 환경, 물질기술적토대는 서해의 많은 섬분교들가운데서 당당히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교수교양에 필요한것들이 원만히 갖추어진 아늑하고 정갈한 교실과 교편물실, 비록 크지는 않아도 바위돌을 깎아 넓히고 다듬은 터전에 철봉이며 평형대, 너비뛰기장까지 갖추어놓은 운동장 그리고 쑥대와 능쟁이만이 무성하던 서덜밭을 갈아 뭍에서 날라온 흙을 두툼히 깔고 딸기와 참외, 무우와 배추, 강냉이와 콩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남새와 알곡을 심어가꾸어 분교 학생들에게 자연에 대한 산지식을 주고있는 아담한 《꼬마포전》…

지도에서 처음으로 랍도를 찾아보던 그때로부터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인정순은 어느덧 예순고개를 가까이하고있다며 자기의 희슥한 귀밑머리를 쓸어만졌다.

평범한 녀성의 흰 귀밑머리는 어쩌면 가정과 자식, 남편을 위해 고생한 흔적으로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교육자의 흰

귀밑머리는 이를 초월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뛰여넘어 수십, 수백, 수천의 제자들의 미래를 담보해야 하는 중임때문이다.

분교의 작은 교정을 조국의 귀중한 한부분으로, 삶의 전부로 여기고 후대교육사업에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그의 흰서리는 나의 희여진 귀밑머리와는 감히 대비할수도 없는것이다.

대화의 마감에 나는 무엇을 위해 수십년간이나 외진 섬의 교단을 지켜왔는가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과연 한마디로 다 말할수 있겠는가고 생각하면서…

《교육자의 량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그때 량심의 목소리가 어떤것인지를 직접 들을수 있었다.

그는 말했다.

뭍으로부터 수백리 떨어진 날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새 세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고싶었다고.

교육자의 량심을 지켜 외진 섬에서 20여년.

결코 말조차 쉽지 않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직 후대교육사업에 한생을 바쳐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와 같은 량심의 인간들이 있어 조국의 미래는 담보된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그처럼 참된 량심을 지니기 전에는 그 무엇을 위해 살았다 해도 결코 보람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나는 지금도 그가 지켜선 교정을 그려본다.

넓지 않고 높지 않은 그의 교단.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량심의 교단이였다.

훌륭한 제자의 뒤에는…

예로부터 훌륭한 제자의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교원의 역할이 부모 못지 않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귀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라면 그들은 누구나 성인군자 같은 스승을 만나기를 바랄것이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세상을 바로 보고 인생을 바로 사는 정기를 가득히 채워주는것이 교육자라고 믿기에.

하지만 그런 교육자가 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언제인가 신문지상에서 문명국가라고 하는 어느 한 나라의 교육실태를 두고 이렇게 비평한것을 본적이 있다.

《이 나라에서는 고양이, 개를 훈련주는 <교양원>들에 대한 요구가 오히려 후대교육을 책임진 교원들에 대한 요구보다 훨씬 더 엄하다. 이것은 <문명국가>의 수치이다.》

또 어느 한 나라 신문은 자기 나라에서 교원들은 25%가 대학문앞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며 수학교원의 40%가 초보적인 교수능력도 갖추지 못하고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지구촌 여기저기를 둘러보면 신성하다고 하는 교정에서 교원들의 온갖 비행이 끊기지 않고있다. 하여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아우성이 교정에 비발치고있는것이다.

리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답할수 있다. 그것은 교육자의 량심을 버린 사이비교육자들때문이다.

언제인가 사업상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 일하다가 가족과 함께 귀국한 중국인학부형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적이 있었다.

그는 교원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기의 아들이 어느날 앓게 되여 학교에 가지 못했는데 저녁에 아들의 담임이 집에 찾아와 언제부터 등교할수 있겠는지 몹시 걱정하는것이였다.

교원은 학생 한명당 출석률에 자기의 로임이 오르내리는데

병이 좀 호전되는것 같으면 빨리 등교시키라고 하는것이였다.

아들을 걱정해주는것으로 알고 감개무량해있던 학부형은 몹시 아연해졌다.

그러니 그 교원은 자기 아들의 병문안이나 아들의 학업이 뒤떨어질가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로임때문에 가정방문을 했던것이다.

솔직히 이런 일은 다른 나라에서 흔하게 볼수 있다.

이렇게 교육자의 기본정신과 풍모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교육자들로 하여 교원들에 대한 존경이 사라져가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나는 조국방문의 나날 참다운 교육자, 스승들에 의해 새 세대들이 훌륭한 인간들로 성장해가는 교정의 세계를 목격할수 있었다.

우선 조국에서 교원에 대한 사회적인식자체가 다른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조국에서는 교원이 직업적인 혁명가로 인정되고있으며 교육사업은 량심이고 헌신이며 애국으로 간주되고있다.

교육자라면 자기 직업을 가장 신성한것으로 여기고 누가 알아주건말건 후대들을 앞날의 역군으로 키우는 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나가는데서 삶의 보람과 영예와 긍지를 찾고있었다.

《교육자들이야 후대들을 위하여 뿌리가 되여야 할 사람

들이 아닙니까.》

세계적인 두뇌경기에서 1등을 한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냈다는 교원이 한 이 진정의 토로에서 조국의 교육자들이 지닌 고상한 정신세계를 그대로 엿볼수 있었다.

뿌리는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줄기를 자래우고 잎이 무성하게 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뿌리가 된 참된 교육자들이 지켜선것이 다름아닌 조국의 사회주의교육제도인것이다.

어제도 그러했지만 새 세기 교육혁명이 벌어지고있는 오늘날 조국에서는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교단을 지켜나가는 훌륭한 스승들을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다.

내가 직접 목격한 사실가운데는 이런 일도 있었다.

두해전 풍요한 단풍계절을 맞춰 조선의 6대명산의 하나로 알려진 구월산에 대한 참관을 마치고 돌아오던차에 우연히 우리일행은 조옥희해주교원대학에 들리게 되였다.

이 대학은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첫 녀성영웅인 조옥희녀성의 이름을 달아 부르고있는 대학이다.

1948년 11월 이 대학을 찾아주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새 조국건설의 역군으로 키워낼 유능한 교원들을 많이 양성하며 교육사업과 대학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고 한다.

지난 기간 대학일군들과 교육자들은 위대한 주석님의 유훈을 가슴깊이 새기고 학생들을 앞날의 참된 교원혁명가로 키우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는것이다.

이 대학에서 학생교양을 위해 《조국을 받드는 뿌리가 되자》라는 교양자료집을 리용하고있는것은 이제 온 나라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한다.

이 교양자료집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학졸업생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아름다운 소행을 두고 그토록 기뻐하시며 높이 평가해주신 내용들과 함께 섬초소들에 있는 학교, 분교들에 자원진출한 졸업생들의 이름이 적혀져있다고 한다.

대학에서는 이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학생들이 혁명가적인생관, 후대관을 지닌 앞날의 참된 교육자들로 준비되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특히 졸업학년학생들속에서 교양자료집과 여러 신문에 소개된 졸업생들의 미풍을 가지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은 이 대학의 류다른 모습이다.

또한 섬분교 교원들과의 상봉모임을 해마다 조직하고 거기에서 보내오는 편지들에 대한 독보와 섬분교 교원들의 교육사업성과를 학생들속에 널리 소개하는 사업 등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는것이다.

대학과정에 실력을 다져가는 많은 학생들이 졸업후 분교들에 자원진출할것을 결의해나서고있다고 한다.

바로 그날 우리가 안내원으로부터 우의 설명을 들으며 대학정문앞에서 우연히 목격한 현장도 섬마을교원으로 자원진출하는 처녀대학생들을 환송하는 모임이였다.

훌륭한 교육은 훌륭한 인간을 만드는 법이다.

섬마을아이들을 훌륭히 키워낼 푸른 꿈을 안고 교정을 떠나는 그들을 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많은 일군들이 떨쳐나 열렬히 축하해주고있었는데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내가 몸담고있는 나라에서는 저렇게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곳으로 나서자란 정든 땅을 떠나 자원해간다는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물론 어느 나라에나 나름의 의의있는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있는 청년들이 있지만 아마도 저 청년들처럼 일생을 외진 곳에 가서 살라고 하면 도리머리질할것이다.

여러가지 색갈의 테프를 늘여 화려하게 꾸민 꽃길로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환영을 받는 처녀대학생들.

과연 20대 꽃나이, 책상물림의 처녀들의 가슴속에 자기보다 조국의 짐을 덜어주고싶어하는 그런 고귀한 마음이 자리

잡고있단 말인가.

그때였다.

《은별아!》, 《은별이!》 하며 에워싸는 뭇사람들속에 묻히는 한 처녀가 있었다.

《선생님, 동무들…》

처녀는 그들과 서로 얼싸안고 기뻐 어쩔줄 몰라했다.

그의 중학교 동창생들과 교원들이라는것이 알렸다.

그들이 걸어주는 꽃다발과 꽃목걸이로 하여 처녀는 마치 꽃으로 만든 옷을 입은듯 했다.

행복에 겨운 웃음을 짓고 한사람한사람의 얼굴을 일별하던 처녀는 문득 곁에 서있는 반백의 녀인을 띄여보고는 어푸러지듯 달려가 안겼다.

《어머니!》

《은별아!》

처녀를 에워싼 동창들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떼자 모두가 그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주었다.

모녀간이라고 하기에는 심한 차이가 느껴지는 그들이였다.

처녀는 고운 얼굴에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어머니가 바라시던대로, 어머니가 당부하신대로 꼭 훌륭한 교원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우리들도 어머니의 자식들답게 살겠습니다.》

금방까지 처녀와 어깨성을 쌓고있던 처녀의 동창들모두가 합창을 하며 로인의 품에 저저마다 안겨들었다. 《어머니—》하고 부르면서.

대학생들과 대학일군들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고였다.

과연 처녀와 동창들모두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저 녀인은 누구인가.

학장선생이 내결에 서있는 안내원에게 저 학생들을 키운 김상순어머니라고 귀띔해주었다.

(김상순?!)

퍽 귀에 익은 이름이였다.

(누구더라…)

몇번이고 그 이름을 곱씹어보았다.

긴가민가하던 순간에 문득 잡히는것이 있다.

다름아닌 몇해전 《로동신문》.

바로 60대의 한 할머니보육원에 대한 기사였다.

17살부터 40여년동안 황해북도육아원에서 일하고있던 김상순보육원에 대한 이야기.

보건기관에서 운전수를 하는 아버지의 차를 타고 처음으로 육아원에 가보았던 그날, 자기 아버지를 보고서는 《아버지》하고 달려와 매달리고 17살 처녀인 자기를 보고는 무작정 《엄마》라고 부르며 안기려드는 아이들을 부끄러워 누가 볼

세라 억지로 손을 떼여놓던 처녀.

저애들을 누가 키우는가고 물었을 때 나라에서 키워준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다음날로 상급학교로 가려던 결심을 바꾸어 보육원이 된 17살의 애어린 처녀였다.

그때로부터 할머니가 된 오늘까지도 그는 원아들로부터 《엄마》라고 불리우며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것이다.

한 직종에서 40여년동안 일하는것도 헐치 않은 일인데 하물며 탁아소 보육원도 아니고 부모없는 철부지아이들을 키우는 보육원으로 한생을 바쳐온 그 나날에 가슴속에 홀로 묻어둔 사연은 얼마나 많을것인가.

체중이 엄청나게 작은 원아를 위해 자기의 피를 서슴없이 넣어준 이야기, 친아들에게 물려야 할 젖을 출생한지 6개월이 된 원아에게 물렸다는 이야기, 원아들과 있는 날이 집에 사는 날보다 더 많다나니 아빠트의 사람들도 그의 얼굴을 친아들의 결혼식날에야 보았다는 이야기…

흔히 사람들은 어머니에게서 제일 힘든 때는 진아이를 키우는 때라고 한다. 하지만 보육원들에게는 그것이 교대없는 한생의 직업이다. 탁아소 보육원들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부모들의 인사라도 받겠지만 육아원의 보육원은 견학가는 날마저도 수십명 애들을 거느린 한사람의

엄마가 되여야 하는것이다.

나라에 고아의 설음이 비낄 자리가 없게 하려고 김상순녀인은 그렇게 40여년의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한두 자식을 위해서 한생을 바치는 어머니가 아니라 미래의 역군들인 원아들을 위해서 한생을 바치는 녀인.

그는 단 한번도 자기의 남모르는 수고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한적 없었다.

초롱초롱 빛나는 원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가 구수한 목소리로 자주 들려준 말은 오직 하나였다.

《부모없는 너희들도 금싸래기처럼 귀중히 여겨 한품에 안아 키워주는 고마운 당과 조국을 잊지 말아. 조국을 위하여 자기를 바칠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때이르게 굽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그렇게 키운 애들이 종종 찾아옵니까?》 하고 기자가 물었을 때 그는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애들이 나는 잊어도 자기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에 품들여 키워준 나라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의 길을 걸으면 그뿐이지요.》 하고.

그를 두고 신문은 사회주의대가정의 참되고 아름다운 어머니라고 찬양했었다.

나도 그 기사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었는데 뜻밖에도

그 김상순녀인을 직접 보게 될줄이야.

우리와 함께 대학 학장으로부터 그 할머니보육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안내선생도 눈시울을 붉히며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있는것이였다.

학장은 중학, 대학교육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지만 탁아소, 유치원시기는 한 아이의 성장에서 대단히 큰 몫을 차지한다, 저렇듯 진실하고 량심적인 김상순보육원과 같은 사람들의 옳바른 영향을 받으며 자랐기에 다른 나라에서 같으면 사회의 골치거리가 되버리기 일쑤인 고아들이 나라의 기둥감으로 대바르게 자랄수 있는것이라고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는것이였다.

《훌륭한 제자의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말을 다시금 새겨보게 되는 순간이였다.

아마도 저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자기와 같은 제자들을 키워내리라.

교정을 나서는 은별이와 처녀대학생들을 향하여 보내는 박수소리는 나와 우리일행의 박수소리와 합쳐 대학구내를 들썩이게 했다.

그것은 저런 청년들이 있어, 그들을 키워내는 훌륭한 스승들이 있어 공화국을 수호하고 빛내인 영웅들의 넋, 전세대들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있는것이라는 생각, 그로 하여 공

화국은 언제나 굳건하다는 믿음, 저런 애국자들을 키워내는 사회주의교육제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확신이였다.

끝나지 않은 강의

2019년 5월 어느날 아침, 원고들을 정리하고있던 나는 자명종이 울려서야 지난밤 한잠도 자지 못하였다는것을 느꼈다.

집필에 열중하던 나머지 언제 새날이 왔는지도 몰랐던것이다.

아침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마치 나자신이 이름난 작가라도 된듯 한 기분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탁자에는 여느때처럼 여러가지 신문과 잡지들이 놓여있었다.

나는 《로동신문》을 펼치였다.

신문에는 5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과학탐구와 후대교육사업에 헌신한 한 의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었다.

평양의학대학 기초의학부 실장이였던 김태원선생.

수많은 과학기술성과등록증을 받았으며 의학분야에서 국

가최우수과학자들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 30여건의 도서를 집필하고 80여명의 학위소유자를 양성하여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여러차례에 걸치는 감사와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은 로교수였다.

나는 교육자의 눈과 마음으로 그 글을 읽어내렸다.

비록 나와는 감히 견줄수 없는 높이에 있는 권위자였지만 교육자로서 그의 정신세계는 누구나 따라배울만 한것이였다.

여기에 신문에 실렸던 내용을 추려서 옮긴다.

…

많은 의학자들이 김태원선생을 가리켜 창조형의 학자라고 말하고있다.

한 의학자의 한생에 대한 옳은 평가이다. 하지만 그들이 선생을 잊지 못해하는것은 단지 그가 조국앞에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았다는 그것만이 아니다.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인생의 첫 출발선에서나 다름없이 창조의 삶을 줄기차게 이어온 그의 완강한 의지와 정열이 더없이 돋보였기때문이다.

그는 생의 시작이 아름다우면 마감도 아름다와야 함을 후대들에게 산모범으로 보여주었다.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수 있는 70대 중엽에 이르러서도 연구사업에 심혼을 쏟아붓던 김태원선생이 불치의 병이라는 진

단을 받은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전이였다.

하고싶은 일이 많았던 그에게는 실로 천만뜻밖이였다.

《여보, 이젠 실험을 그만두는게 어때요?》

며칠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남편을 바라보며 안해가 겨우 말꼭지를 뗐다.

사실 선생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것을 알고 대학에서는 입원치료를 받을수 있게 모든 조치를 취해주었다. 일군들은 집에 찾아와 선생이 치료를 거절하는 경우 가족들이 잘 설복하도록 거듭 당부도 하였다.

《실험을 그만두라?…》

안해의 말을 곱씹어보는 선생의 눈앞에 아득한 멀리의 시절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야장쟁이의 맏아들로 태여난 그는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 봄에야 비로소 우리 글을 배우게 되였다.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그가 평양의학대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아버지는 눈물이 글썽해서 말하였다.

《태원아, 공부를 잘해서 꼭 훌륭한 의사가 되거라. 너희 열남매가 그 몹쓸 병에 걸려 네 동생 세명은 약 한첩 못써보고 죽고 너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 않았니.》

예술에 남다른 재능이 있던 그가 의학대학을 지망한데서

모든것을 짐작한 아버지는 아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의사가 될것을 희망하며 대학교정으로 들어선 김태원선생이 기초의학연구를 결심하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1955년 1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의학대학의 미생물학강좌를 찾으시였다. 그때 교원들이 리용하는 현미경도 몸소 보아주시며 우리 생활에 나쁜 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없애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전달받은 선생의 가슴은 격정으로 끓어올랐다.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병의 근원을 연구하고 그것을 예방하는 의학자가 되고싶은 20대 청년의학자의 포부는 이렇게 꽃펴나게 되였다.

대학기간 기초의학에 대하여 직심스레 파고든 그는 졸업후에는 연구사로, 실장으로, 권위있는 박사, 교수, 후보원사, 공훈과학자로 자라났으며 국가적인 중요대회들에도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이제 더는 과학연구를 할수 없단 말인가? 아니, 아니야. 그렇다면?)

끝없이 계속되는 고뇌속에서 한동안 몸부림치던 선생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래일 당장 입원하기요.》

《?…》

그 순간에 선생의 가슴속에 무엇이 끓고있는가에 대하여 안해는 미처 몰랐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쇠퇴기에 이른 남편이, 지금껏 달성한 연구성과로 하여 누구보다도 떳떳이 인생을 총화할수도 있는 그가 치료를 받을 결심을 품은것이 단순히 생이나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것만은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지 한달이 좀 지나서 실험실로 들어서는 선생을 본 연구사들은 저마다 걱정어린 눈빛들을 보내였다.

《선생님, 치료를 더 받아야 합니다.》

《고맙소. …나에게서 일은 곧 보약이나 같소. …》

이전과 다름없이 실험을 진행하는 선생의 얼굴에는 연구사업을 끝내기 전에는 죽을 권리가 없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가 비껴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여가던 약물실험이 중단되였다. 실험의 일부 공정에서 문제가 생기였던것이다.

며칠째 선생이 고심하는것을 본 몇몇 연구사들은 연구사업을 결속하는것이 어떤가 하는 의향을 비치였다.

이때 선생은 단호한 립장을 표시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이 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라고 하신

의도가 뭐겠소. 리론적인 연구나 해놓고 평가부터 받을 생각을 한다면… 의학자의 량심이 용서치 않을거요.》

명예와 평가도 귀중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당의 높은 뜻을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줄 아는 진짜배기 의학자가 되여야 한다는 선생의 절절한 이야기가 연구성원들에게 준 충격은 컸다. …

김태원선생은 생의 말년에 자기 지식에서 빈구석을 발견하자 주저없이 **김일성**종합대학의 젊은 연구사들을 찾아 떠났다. 머리가 흰 후보원사선생이 자기들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그들은 처음에 영문을 몰라하였다. 로의학자의 진정을 알게 되면서부터 선생의 실험을 적극 도와나섰다.

프로파게르마니움주사약은 이렇게 개발되였다.

그는 사랑하는 안해와 자식들의 뜨거운 마음도 어려있는 약물이 환자치료에서 효험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더욱 정신을 가다듬으며 연구사업을 다그쳤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육체는 그에게 쉬임없이 붉은 신호를 보내고있었다.

아픔으로 잠 못 드는 밤이면 가족들이 걱정할가봐 우정 책상앞에 앉아 책장을 번지기를 그 몇번…

이런 속에서도 그는 여러종의 약물을 또다시 개발하였으며 림상적의의가 큰 도서들을 집필하였다.

어느날 선생의 강의를 받던 한 제자가 크리코셀에 대하여 질문한적이 있었다. 고지혈증치료에 특효가 있는 그 약은 선생이 개발한것인데 국내외에서 커다란 인기를 모으고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과 기대어린 눈빛을 선생에게 보내고 있었다.

화학, 물리, 외국어 그 어느 분야도 막힘이 없던 선생이였지만 왜서인지 그에 대한 대답을 다음 강의시간으로 미루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서는 김태원선생의 손에는 여러가지 남새와 함께 분쇄기가 들려있었다.

《고지혈증치료에 우리 나라의 남새가 어떻게 좋은지 동영상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주자고 하오. 다른 사람들의 실험에 방해가 될가봐 실험실에선 분쇄기를 못 돌리겠구려.》

밤깊도록 안해와 함께 집안이 좁다하게 남새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분쇄기에 넣으며 사진을 찍는다, 동영상자료를 만든다 분주히 돌아가는 선생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히였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였다. 자기의 과학연구과정에 이룩된 귀중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그의 강의는 항상 많은 학생들을 매혹시켰다. 사람들의 건강에 셀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그의 강의를 듣고 많은 박사원생들이 연구종자를 찾아쥐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제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먼길도 서슴없이 걸은 김태원선생이였다.

지난해 4월말 의식을 잃은채로 병원에 실려갔던 선생이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었다.

《론문… 실험…》

《예? 실험이라니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몰라 안타깝게 소리쳤다.

이때 선생에게 다가서는 제자가 있었다.

혼미한 의식속에서도 무엇인가를 말하고싶어하는 선생의 심정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며칠전 김태원선생을 만나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선생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갔던 그는 선생이 박사원생들의 학위론문준비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대학으로 나갔다는 가족들의 말에 다시 발걸음을 돌리였다.

이 시각 응용미생물연구실의 어느 한 방에서는 여러명의 론문제출자들이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의학생물학학위론문분과심의위원회 위원장이였던 선생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있었다.

《내가 늘 말하는데 론문의 가치는 페지수가 결정하는것이 아니요.》

《동무의 연구종자는 좋은데 이 부분에서는 방향을 잘못 정하였구만.》

오랜 시간을 바쳐가며 론문제출자들의 부피두터운 론문을 일일이 검토해주고난 선생이 문가에 서있는 그를 발견한것은 퇴근시간이 훨씬 지나서였다.

들어오지 않고 왜 복도에 있었는가고 나무라는 스승에게 제자는 인사말도 잊고 볼부은 소리부터 하였다.

《선생님, 몸상태도 이전같지 않은데 론문지도까지 꼭 해야 합니까?》

자기의 건강이 걱정스러워 달려왔을 제자의 마음을 읽은 선생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피여올랐다.

그날 저녁 집까지 바래우겠다고 따라서는 제자와 함께 가로등불빛이 밝은 밤거리를 거닐며 선생은 말하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실지로 도움이 될 훌륭한 박사론문을 기다리겠으니 방조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스승을 찾아오라고…

김태원선생은 생의 마지막힘을 모아 사랑하는 제자를 찾았다. 두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애써 닦으며 제자는 스승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였다.

《선생님, 제 꼭…》

누구에게나 인생의 목표가 있다. 김태원선생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제자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과 인민앞에 내세우는것이였다.

나라의 의학발전을 위하여 줄기차게 고동치던 로교수의 심장은 비록 멎었지만 그의 헌신적인 삶은 여전히 제자들과 후대들을 가르치고있다.

*　*　*

사람은 생명이 꺼지는 순간에 참으로 하고싶은 이야기, 남기고싶은 말 또한 많을것이다.

하건만 그 마지막순간에조차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와 그의 론문을 걱정했다는 김태원선생의 모습은 결코 교육자라고 누구나 지닐수 있는 풍모가 아닌것이다.

그와 같은 순결한 교육자적량심은 이 세상 모든 교육자들이 지녀야 할 품성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로교수의 강의가 끝난것이 아님을 믿는다.

오늘도 그의 교육자적량심은 그가 서있던 교단에 슴배여있고 그가 키워낸 수많은 제자들에 의하여 이어지고있는것이다.

붉은넥타이

평성시내중심에서 순천방향으로 뻗은 도로가까이에 평성시은정고급중학교가 있다. 몇해전에 새로 일떠선 학교여서 사람들속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 학교가 세 중학생들의 소행과 더불어 온 나라가 아는 학교로 되였다.

리정덕, 최현일, 서려명학생들.

그들은 학교뒤산에서 뜻밖의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진화하기 위하여 불길속에 서슴없이 한몸을 내대였다.

무섭게 번져지는 산불을 끄기 위해 그들이 결사적으로 치달아오른 골짜기 바로 옆에 학교소년단림과 청년림이 있었다.

심한 화상을 당한 그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이 청년동맹원이 된지는 불과 10개월도 되지 않았다는것을 생각했다.

학생들의 나이는 15살.

15살 난 평범한 세명의 중학생들은 례사로운 날, 전혀 예견치 못했던 비상한 정황속에서 조선의 새 세대들이 안고 사는 숭고한 지향과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산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세 학생에 대한 기사를 보았을 때 나는 평남땅의 나어린 세 애국자들의 모습에서 조선의 청년들만이 아닌 청년전위로 성장하는 소년단원들의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

그들만이 아니였다.

등교길에서 사고요소를 발견하고 달리는 렬차를 맞받아나갔던 학생도 소년단원이였고 물에 빠진 동무를 구원하기 위해 서슴없이 물속에 뛰여든 13살의 애어린 학생도, 많은 파철을 모아 제철소에 보내준 나어린 형제도 소년단원이였다.

미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미담들이 무수히 태여나는 조국의 현실에 어지간히 익숙된 나였지만 철부지소년단원들까지 이렇듯 훌륭한 소행을 발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지라 와닿는 느낌은 놀라움 그자체였다.

가까운 친구의 아들이 생각난다.

그는 게임중독자이다. 자기 방에 《왕국》을 꾸려놓고 은둔생활을 하며 하루종일 게임만 한다고 한다. 부모가 설득하고 욕을 하면 폭력적으로 돌변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모를 몸으로 밀치기까지 하는 등 통제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아버지한테서 돈을 훔쳐 게임에 지출하군 했다.

하루는 친구의 집에 간 기회에 그의 아들에게 슬그머니 물어보았다.

《게임이 그렇게 재미있니?》

《나에겐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것이 없어요.》

《너희 부모들은 네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하던데…》

《공부소리만 하면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게임을 하면 순간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고싶니?》

《모르겠어요. 생각 안해봤어요.》

친구의 아들과 대화를 나누며 나는 《자기 아들에게 쓸모있는것을 배워주지 않는 사람은 도적놈을 키우는것이나 다름없다.》고 한 그 누군가의 말을 상기했다. 게임에 중독된 학생이 그 상태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오늘 자본주의나라 청소년들속에서는 《정직하게 사는것보다 부자가 되는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신성한 배움의 교정이 폭력의 란무장으로 변하고있어 사회적인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가정과 학교, 사회적영향 등은 아이들의 성장에서 뿌리와도 같다. 그 뿌리가 썩고 병들었으니 어찌 싹트고 자라나 꽃피고 열매맺을수 있겠는가.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다. 어릴적 배운것이 무덤까지 따라가게 된다. 아이들을 옳바른 품성과 건전한 도덕을 지닌 인간들로 교양육성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흥망성

쇠가 좌우되게 된다.

꿈과 희망을 안고 푸르싱싱하게 자라나야 할 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주입받고 폭력에 물젖어가고있으니 이런 사회의 미래가 장차 어떠하리라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로씨야의 한 문호는 일찌기 《아이 하나를 교양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것보다 더 진지한 사색과 깊은 지혜가 요구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였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자신보다 먼저 동무들을 사랑하고 조직과 집단을 알고 귀중히 여기며 더 나아가서 조국과 인민이라는 가장 성스러운것을 위해 자신을 바칠줄 아는 참다운 인간, 소년혁명가들로 키워내는것이 바로 공화국의 교육제도이다.

항일아동단원의 귀감인 9살의 김금순소녀의 정신세계, 전화의 나날 고향땅에 기여든 원쑤들과 용감히 싸운 소년근위대와 소년빨찌산의 애국주의와 용감성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끗끗이 이어지고있다.

조국방문의 나날 나는 여러 소학교, 초급중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들을 참관하면서 조국의 소년단원들이 참다운 소년혁명가, 나어린 애국자들로 대바르게 자라고있는 비결에 대해 잘 알수 있었다.

언제인가 평양제4소학교를 찾았을 때였다. 교장의 안내를 받으며 학교의 교육시설들과 학생들이 수업받는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은것은 학생소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모두가 강성조선을 위하여 이바지할 꿈과 포부를 가지고있는것이였다. 만나본 소년단원들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겠다.》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학생들이 수학려행, 견학, 답사, 참관을 통하여 사회현실을 옳게 리해하도록 하는 한편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나서자란 고향마을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고있었다.

이곳 학교의 교장은 자라나는 후대들을 행복만을 아는 귀동자, 귀동녀가 아니라 선렬들이 피땀바쳐 이룩한 모든 재부들을 귀중히 여기고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제손으로 가꾸는 참된 소년애국자들로 키우고있다고 하였다.

이런 훌륭한 교육교양제도가 있어 모든 학생소년들이 공부를 잘할뿐아니라 례의도덕이 밝고 선생님과 웃사람들을 존경하며 체육도 잘하고 애국의 한마음으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모범소년단원으로 자라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태양의 빛발아래 온갖 꽃들이 피여나듯이 우리 소년단원들이 혁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자랄수 있는것은 숭고한 후대관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며 교장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일찌기 새날소년동맹과 항일아동단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해주시고 1946년 6월 6일 조선소년단을 창립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전에 늘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였다고 한다.

그 사랑, 그 은정으로 온 나라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해마다 새 교복을 해입히는것을 국가의 시책으로 정해주시고 명당자리와 경치좋은 곳마다에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는 아이들의 궁전을 훌륭히 일떠세워주신 주석님이시였다.

오늘도 이 땅의 수백만 소년단원들의 가슴속에는 붉은넥타이를 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나어린 학생소년들의 볼을 다독여주시며 품에 안아 사랑의 사진도 찍으시던 수십년전의 순간순간들이 그리움의 화폭으로 간직되여있다.

1997년 설날 아침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자신께 붉은넥타이를 매여드린 원아를 자애로운 품에 따뜻이 안아주실 때 그이를 아버지라 목메여 찾고 부르던 수많은 원아들의 격정의 웨침이 오늘도 귀가에 쟁쟁히 들려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시여 온 나라 소년단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주실 때에도 세계는 그이께서 붉은넥타이를 매고계시였음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듯 절세위인들과 붉은넥타이는 언제나 함께 있었다.

붉은넥타이, 그것은 절세위인들께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조국의 미래이다.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2012년 6월 6일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이라고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장이 쩡쩡 울리도록 축하의 인사를 보내주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지금도 나의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그이를 우러르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소년단원들을 보면서 나 역시 눈굽이 뜨거워올랐었다.

김정은원수님께 있어서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인것이다.

한평생 소년단원들속에 계시며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사업에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신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모든 소년

단원들이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고있음을 나는 확신하였다.

조국에서는 해마다 경사스러운 민족최대의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진행되군 한다.

지난해 나도 거기에 참가하여 일군들과 전쟁로병, 공로자들이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에게 붉은넥타이를 매여주는 모습을 보았다.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학생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에 화답하며 소년단원의 첫인사를 하였다.

수백만 계승자들의 앞가슴에 날리는 붉은넥타이에서 나는 보았다.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가꾸어가시는 령도자의 사랑속에 무궁토록 번영할 조국의 밝은 미래를.

세계에 도전하다

지구촌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놀라워하는것이 있다.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박, 끈질긴 봉쇄책동을 쳐물리치며 비약하고 전진하는 조선의 힘찬 기상이다.

조국에는 경제와 문화, 과학,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세계를 앞서나갈 열망과 의지를 안고 첨단돌파의 앞장에서 나가는 유명무명의 과학자들이 많다.

그들은 모두 조국의 대학들에서 마음껏 배우며 희망과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친 과학자들이다.

조국에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의 질적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모든 대학생들을 높은 탐구능력과 응용능력을 지닌 창조형의 인재, 세계적인 과학자들로 키워내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해 나는 인터네트홈페지를 통하여 도이췰란드의 한 명성높은 교육전문가가 발표한 새 세기의 인재양성문제에 관한 론문을 흥미있게 읽은적이 있었다.

그는 자기의 론문에서 태아교육으로부터 학교전어린이교육, 초등 및 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이르는 교육의 전 령역에 걸쳐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세계교육발전추세와 결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와 교육환경이 마련되여있는 조선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재능에 맞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인재로 성장하고있다고 하면서 《교육에서 모범의 나라, 사회주의조선의 교육현실을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교육전문가의 론문은 발표되자마자 급속히 전파되여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론문을 자자구구 읽어가느라니 눈앞으로는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고있는 조국의 대학들의 전경과 과학의 첨단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열심히 배워가고있는 청년대학생들의 모습이 영화화면처럼 흘러갔다.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종합적기지라고 일컬으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참관하면서 전자도서관을 찾았던 일이 떠올랐다.

1948년 9월에 **김일성**종합대학의 공학부, 철도공학부를 모체로 하여 평양공업대학(당시)으로 창설되였던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오늘 나라의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었다.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사회경제발전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내고있는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본 나는 전자도서관에도 들리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글발이 유난히 빛나는 전자도서관의 전자열람실에 들어서니 콤퓨터를 마주한채 사색과 탐구에 여념이 없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안내하던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6년 1월 이곳 전자도서관을 찾으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날 외국문과학기술원서를 그대로 보고있던 한 연구사에게 다가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확실히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들의 외국어수준이 정말 높다고 치하하시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대학생들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괄목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는것이였다.

원격강의실을 거쳐 인터네트열람실에 들리니 콤퓨터들이 줄지어놓인 이곳에도 학업에 열중하고있는 대학생들로 하여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배워 과학으로 비약하며 세계를 압도해나갈 야심찬 의지가 비껴흐르고있었다.

나는 콤퓨터를 마주한 한 대학생에게 다가가 잠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류성철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그 학생은 《전자도서관은 우리 청년대학생들에게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에 당당히 맞서나갈 지혜와 열정을 안겨주고 세계를 보는 밝은 눈을 준다.》고 하면서 대학기간에 최첨단에로 비약해갈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였기에 국제적인 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들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알고보니 그는 국제인터네트프로그람도전경연인 《코드쉐프》경연에서 3련승을 쟁취한 대학생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의 소개로 류성철과 함께 《코드쉐프》경연에 참가하였던 다른 대학생들도 만나보았다.

《코드쉐프》경연으로 말하면 세계3대 1부류에 속하는 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들중의 하나로서 프로그람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참가하는 세계적으로 인기있고 권위있는 경연으로 되고있다. 제시된 문제들에 한하여 작성한 프로그람의 정확성을 놓고 승부를 겨루는 《코드쉐프》경연에는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온 우수한 프로그람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이 참가하군 한다.

경연의 규모만 놓고보아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높은가를 가늠해볼수 있는것이다.

《코드쉐프》경연에 참가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대학생들이 2015년 3월과 4월, 5월에 진행된 경연에서 련이어 1등을 하여 3련승을 안아왔다니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세계의 77개 나라와 지역에서 6 578명의 프로그람전문가들과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진행된 경연에서 첫시작부터 긴장하게 두뇌전을 벌리였다. 출제된 마지막 도전문제는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차원평면에서 N개의 점을 구하는것이였다.

경연참가자들 대다수가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만 풀려고 접어들 때 나는 문제의 성격에 맞게 퇴성법칙을 적용하면서 알고리듬을 작성하였다. 경연이 끝날 때까지 다른 나라 경연참가자들이 제출한 프로그람들은 내가 처음에 제출한 프로그람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경연에서 풀이를 갱신할수 있는 회수는 500회였는데 다른 나라 경연참가자들은 자기에게 차례진 이 기회를 최대한 리용하고도 모자라 아쉬워할 때 나는 불과 200회의 갱신으로 목표값에 접근하여 최고점수를 받아 경연에서 우승을 쟁취하였다.》

류성철학생의 말이 끝나자 다른 학생도 자기는 경연에서 250회의 갱신으로 경연에서 2등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세계프로그람계를 경탄시킨 대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나는 그들의 부모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고 물었다.

대학생 1: 《저의 아버지는 영예군인이다. 그리고 이 동무도 로동자가정에서 태여났다. 우리들모두가 평범한 가정의 자식들이지만 나라에서는 우리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내여 어릴 때부터 평양제1중학교를 비롯한 수재양성기지들에서 마음껏 배움의 나래를 펼칠수 있게 해주었다.》

대학생 2: 《저의 아버지는 박사이며 영웅이다. 아버지는 늘 저에게 결코 머리가 좋아 아버지가 박사로, 영웅으로 된것이 아니다, 너도 어떤 유전적인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프로그람경연무대에까지 나설수 있은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군 하였다. 그리고 조국의 고마움을 한시도 잊지 말고 시간을 아껴 열심히 공부하여 조국의 존엄을 떨치는 세계적인 인재가 되라고 당부하시였다.》

대학생 3: 《비옥한 토양에서 알찬 열매가 열리듯이 고마운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있어 세계를 향해 마음껏 나래쳐올라 세계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에서 패권을 쥘수 있었다. 그래서 <코드쉐프>경연에서 어려운 마지막 한문제까지 기어이 풀어내고 인터네트상의 맨우에 람홍색공화국기가 새겨질 때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리며 어깨겯고 노래 <조국찬가>를 불렀다.》

대학생 4: 《우리에게는 아직 개척해야 할 미지의 세계, 넘기 어려운 첨단과학기술의 봉우리가 많다.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패권자가 되기 위하여 분발

하고 또 분발하겠다.》라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의 얼굴들마다에 활력과 기백이 차고넘쳤다.

앞으로의 세계적인 프로그람경연들에서 계속 우승하기를 바라며 그들과 헤여진 나는 때마침 진행되고있는 제33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장에도 들리였다.

기계공업, 정보기술, 금속채취, 에네르기, 기초과학 등으로 나뉘여 과학기술성과발표회 및 전시회형식으로 진행된 축전에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과 함께 대학생들도 수많이 참가하였는데 참으로 볼만 하였다.

대학일군의 말에 의하면 교원, 연구사들과 대학생들이 이룩한 과학연구성과들가운데는 《신발공업에서 레이자의 응용》, 《평양버섯공장 통합생산체계》, 《무궤도전차차틀구멍가공중심반》을 비롯하여 《초림계탄산가스에 의한 수지신발창의 발포기술》, 《만능수지고기배설계 및 건조공정확립》, 《기능수제조기》 등 과학기술과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이 많이 출품되였다고 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교육과 과학연구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창조형인재육성과 첨단과학리론, 기술창조를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과정에 대학생들속에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첨단연구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고있다는 대학일군의 말을 들으며 나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비옥한 토양에서 곡식이 잘 자라듯이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체계와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해나가고있으니 대학생들이 재학기간에 첨단을 돌파해가는 창조형의 인재들로 자라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조국에서의 교육과 과학, 인재육성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있는 나는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여러 대학들에서 진행되는 과학기술축전들을 시간을 내여 가보군 한다.

2017년 10월 과학기술전당에서 열린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장을 찾았던적이 있었다.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온 나라의 청년대학생들이 분초를 아껴 열심히 학습하는 과정에 이룩한 천수백건의 가치있는 발명 및 정보기술제품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느라니 전시품들마다에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세계를 앞서나갈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적극 노력하고있는 청년대학생들의 정신세계가 뜨겁게 슴배여있다는것이 알리였다.

그때 김책공업종합대학 체신학부 학생들인 원현일, 한충원 학생들을 알게 되였는데 그들은 세계적으로 리용되고있는 치과임플란트치료를 비롯한 치과치료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치과렌트겐화상의 골질분석체계를 내놓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평양철도대학(당시)의 김림주학생이 개발한 철도려객봉사지원프로그람은 려행자들이 지능형손전화기를 리용하여 봉사를 받을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원산수산대학 조경준학생이 연구한 저마력고기배에 의한 깊은바다새우뜨랄의 생산성제고에 대한 연구는 얕은바다와 깊은바다에서 어업활동을 적극 진행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시회장에서 낯을 익힌 평양교원대학의 박선미학생이 개발한 모래터놀이프로그람과 이 프로그람을 리용한 모래다기능칠판도 매우 흥미있었다.

박선미학생은 나에게 재학기간에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가상현시기술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에 힘을 넣어 소학교교육지원프로그람 《최우등》을 개발하였을뿐아니라 가상환경프로그람 《물놀이》와 《유희장》, 모래다기능칠판프로그람 《금모래 1.0》을 완성하여 새로 꾸려진 유치원교실과 소학교교실에 도입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나날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전시회, 전국대학생과학연구발표회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 발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그였다.

두뇌로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만만한 야심과 배짱을 지닌 대학생인재들은 비단 이들만이 아니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배지성학생은 비선형나노광학분야에서의 새로운 첨단연구성과들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에 여러건의 론문을 발표하여 세계물리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가 하면 리과대학의 리지성학생도 세계물리학계의 가장 권위있는 학술잡지로 공인되고있는 《물리학평론》(Physical Review)에 연구론문을 발표하여 과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을 비롯한 기초과학분야의 다방면적인 지식과 상식들을 막힘없이 척척 구사할수 있는 높은 능력을 소유하여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으로 불리우는 대학생들도 많았다.

만나본 대학생들마다 약속이나 한듯 이렇게 결의다지였다.

《우리의 경쟁대상은 세계이며 경쟁의 주인공은 우리 청년대학생들이다. 두뇌로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첨단과학의 미지의 세계를 돌파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자랑높이 떨치겠다.》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필 자	김 영 란
편 집	리 연 선
장 정	김 영 일
교 정	주 설 미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8(2019)년 10월 16일
발 행	주체108(2019)년 10월 19일

ㄱ-1453ㄷ

ISBN 978-9946-31-108-1